

2025 ICT ODA 관리체계 구축

유은진/임동민/김지원/송영민/장지원/유성훈/서소영/
황준호/고상원

2025. 12



정책자료 25-16

2025 ICT ODA 관리체계 구축

유은진/임동민/김지원/송영민/장지원/유성훈/서소영/
황준호/고상원

2025. 12

서 언

전 세계는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AI 전환(AX)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초거대 모델, 데이터 활용 기술의 진전은 국가의 경제 구조와 사회 시스템 전반에 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발도상국의 성장 경로에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 발전 속도의 격차와 디지털 접근성 및 역량의 불균형은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과정에서 디지털 포용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ICT ODA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인프라·제도·데이터·역량을 통합한 패키지형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경제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은 전자정부, 디지털 인프라 구축, ICT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개발 등 그동안 축적해 온 강점 분야를 바탕으로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AI·데이터 기반 기술 활용 분야에서도 개도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ODA 예산 축소와 글로벌 복합위기의 장기화 속에서 효과성과 성과 중심의 개발협력 원칙이 한층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제4차 개발재원총회에서도 기존 개발재원 체계를 점검하면서, 과학기술·데이터·디지털 금융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 요소가 개발재원 전략에 중요한 구성요소로 재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는 AI·데이터 기반 협력이 향후 개발협력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ODA 사업의 체계적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ICT ODA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획, 사전타당성 조사, 자체평가 등 ICT ODA 전 주기를 체계화하고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 고도화 및 시행기관 협의회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ICT ODA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ICT ODA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신뢰 체계 구축, 기술·제도·역량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경험과 기술 역량이 ICT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디지털 포용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2025년 ICT ODA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기관 및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이 상 규

목 차

서언	1
요약문	8
제 1 장 서 론	10
제 2 장 2025 ICT ODA 관리체계 구축 주요 내용	15
제 1 절 2025년 국제개발협력 주요 정책 문서	15
1.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15
2. 중남미 개발협력전략	23
3.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안)	25
4. 한국 ODA 발전방안	27
5.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29
6.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	33
7. 제4차 개발자원총회(FfD4)	36
8. OECD 2025 개발협력보고서: 개발을 위한 표준	38
제 2 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DA 사업 통합수요조사	43
1. 통합수요조사 주요 내용	43
제 3 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ODA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44
1. 사전타당성 조사 주요 고려사항	44
2. 사전타당성 조사 주요 내용	49
제 4 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ODA 사업 자체평가	66
1. 평가대상 사업: ICT 기술정책협력 및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66
2. ICT 기술정책협력(2024) 사업 종료평가	66

3.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2024) 사업 종료평가	71
제 5 절 2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DA 워크숍	77
1. 2025 과학기술·디지털 국제개발협력 포럼	77
2. 2025 과학기술·디지털 ODA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82
제 3 장 결 론	115
참고문헌	116

표 목 차

〈표 1-1〉 무상원조 표준 사업 절차(안)	12
〈표 2-1〉 수원총괄기관 공식요청서 포함 내용(예시)	44
〈표 2-2〉 사전타당성 조사 필요 항목(예시)	45
〈표 2-3〉 3기 중점협력국 및 국가협력전략(CPS) 중점협력분야(가나다 順) ..	46
〈표 2-4〉 라오스 일정	50
〈표 2-5〉 라오스 참여연구진	51
〈표 2-6〉 방글라데시 일정	54
〈표 2-7〉 방글라데시 참여연구진	54
〈표 2-8〉 우즈베키스탄 일정	56
〈표 2-9〉 우즈베키스탄 참여연구진	57
〈표 2-10〉 파키스탄 일정	61
〈표 2-11〉 파키스탄 참여연구진	61
〈표 2-12〉 페루 일정	63
〈표 2-13〉 페루 참여연구진	64
〈표 2-14〉 사업추진절차	68
〈표 2-15〉 「가나 5G 이동통신 구축 및 5G 환경에서의 정보보안 정책」 종료평가 결과 요약	69
〈표 2-16〉 「라오스 디지털경제 발전 지표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적용」 종료평가 결과 요약	70
〈표 2-17〉 「페루 산업진흥을 위한 무선광대역 활용 전략 수립 지원」 종료평가 결과 요약	70
〈표 2-18〉 2024년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사업 (종료사업)	71

〈표 2-19〉	나이지리아 정보접근센터 평가 결과 요약	74
〈표 2-20〉	부탄 정보접근센터 평가 결과 요약	74
〈표 2-21〉	알바니아 정보접근센터 평가 결과 요약	75
〈표 2-22〉	세르비아 정보접근센터 평가 결과 요약	75
〈표 2-23〉	콜롬비아 정보접근센터 평가 결과 요약	75
〈표 2-24〉	파나마 정보접근센터 평가 결과 요약	76
〈표 2-25〉	2025 과학기술·디지털 국제개발협력 포럼 세부 일정	77
〈표 2-26〉	2025 과학기술·디지털 ODA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세부 일정	82
〈표 2-27〉	2025 과기정통부 ODA 사업 자체평가 대상	84
〈표 2-28〉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 사업 유형	108
〈표 2-29〉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 사업 내용	108

그 림 목 차

[그림 2-1]	중남미 개발협력 전략 체계도	23
[그림 2-2]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전략 체계도	25
[그림 2-3]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체계도	30
[그림 2-4]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 추진체계도	34
[그림 2-5]	개도국 방송 환경 개선 지원 사업 2025년 협력국	101
[그림 2-6]	IAC → DDS TRANSITION MAP	105
[그림 2-7]	협업체계도	107

요 약 문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을 보유한 국가로, 국가 차원의 ICT 정책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축적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ICT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에 대한 개도국의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ICT ODA 사업에 대한 협력 요청 역시 점차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획·관리하기 위해 ICT ODA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ICT ODA 전 주기를 포괄하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사업 기획, 사전타당성조사, 자체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무상원조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사업 시행 2년 전(N-2)에 협력대상국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합수요조사 및 사업요청서(PCP)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업 간 연계를 추진하고, 복수 기관이 공동으로 제기한 사업 수요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포함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전타당성조사는 시행기관 간 공동 수행과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통합수요조사와 병행하여, 협력대상국의 ICT 주관부처 실무자가 사업 형태를 보다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오픈형 수요조사를 운영함으로써, 현지 수요와 정책적 우선순위가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ICT ODA 사업의 책무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과기정통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부 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사업 관리의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을 수행하는 시행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해 시행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사업계획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함과 동시에 사업 간 연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ODA 사업 성과공유 워크숍과 국제개발협력 포럼을 통해 해당 연도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ICT ODA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제 1 장 서 론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무상원조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유상원조를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정부 부처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반영한 분야별 부처 ODA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분야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ICT ODA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이 수행하는 「ICT ODA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이러한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간 연계와 조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은 과기정통부 소관 ICT ODA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기획 단계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자체평가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KISDI는 무상원조 표준 사업 절차(안)(〈표 1-1〉 참고)에 따라 사업 시행 2년 전(N-2)에 협력대상국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합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합수요조사 대상 국가는 ICT 분야 ODA 사업의 전략적 수행을 위해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선정하며, 2025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는 과학기술 분야 ODA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도 함께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이후 협력대상국의 ICT 관련 부처 및 수원총괄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 참여 의사 및 선호 사업 형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요청서(Project Concept Paper, PCP)를 접수한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통합수요조사와 병행하여 협력대상국의 정책적 수요와 현장 의견을 보다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오픈형 수요조사도 운영하고 있다. 오픈형 수요조사는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협력대상국 ICT 주관부처 실무자가 자유로운 형식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에 대한 현지 수요의 다양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통합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협력대상국 현지 실사를 중심으로 수행된다. 특히 복수의 내역사업에 대한 수요가 제기된 국가의 경우, 시행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공동 수행 방식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는 협력국 담당 부처 및 수원총괄기관의 사업 참여 의지와 수행 역량, ICT 환경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있다.

자체평가는 과기정통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에 따라 과기정통부 ODA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개입찰을 통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 방식으로 수행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평가 과정에서는 OECD DAC 평가지표와 함께 ICT ODA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KISDI는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을 수행하는 시행기관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과학기술·디지털 국제개발협력 포럼을 기획·운영함으로써, ICT ODA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다음 장에서는 2025년 ICT ODA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추진된 주요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1〉 무상원조 표준 사업 절차(안)

단계별 시기	내용	주관
사업 발굴 (상시)	-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 현지 기초조사 등을 통해 개발 수요 확인 및 우수사업 형성	시행기관
재외공관과의 협의 (상시) * 주관기관 협의	- 사업 발굴 과정에서 재외공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의 필요 ※ 사업 발굴 단계뿐 아니라 사업 주요 단계마다 재외공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업 필요 - 재외공관과의 협의 시 주관기관을 <u>경유하는 것이 원칙</u> ※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외교부와 협의하고,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통합적, 체계적, 효과적 ODA 수행 측면에서 바람직	시행기관
PCP 접수	- 수원국 사업요청서(Project Concept Paper, PCP) 접수	시행기관
주관기관-시행기관 협의 (n-2년 11월경)	- 시행기관의 사업 발굴·기획 현황 및 무상사업간 연계 방안 논의	외교부/ 시행기관
n-2 기관 간 예비사업 연계 (n-2년 11-12월)	- 각 시행기관이 예비조사 사업을 제출하고, 동 정보를 기초로 시행기관들의 연계 희망 사업 조사 - 무상 예비사업 간 및 유무상 예비사업 간 연계 검토 ※ 연계 사업 소관 시행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형성 및 사업 이행 과정에서 실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	외교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 현지조사) (n-1년 2월 중순까지)	- 현지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확인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 ※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조사 반드시 실시 필요 -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 수행기관의 사전타당성조사는 지양 ※ 100만 불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단에 민간 전문가 포함 필요	각 시행기관
시행계획 작성지침 안내 (n-1년 2월 초)	- 차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 지침 안내	외교부
내부 사업 심사 (n-1년 2월 말까지)	- <u>기관별 사업심사위원회(기급적 외부 전문가 포함 권고)</u> 를 통해 신규 후보 사업 선정	시행기관
차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 및 외교부에 제출 (n-1년 3월 초)	- 차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을 양식에 따라 작성, 외교부에 제출	시행기관

단계별 시기	내용	주관
재외공관 및 민간전문가의 예비검토 (n-1년 3월 중순 -4월 초)	- 해당 재외공관에 무상원조 사업(신규)에 대한 예비 검토 요청 -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의 무상원조 사업 예비 검토	외교부/ 재외공관
기관 간 협의회 및 무상원조 분과협의회 (n-1년 3-4월)	- 각 시행기관 대상 기관 간 협의회 개최 - 필요시 추가 분과협의회 개최를 통한 보완 (연수/봉사단 파견 사업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과협의체는 필요)	외교부/ 시행기관
무상원조 관계 기관 협의회 (n-1년 5월)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외교부 2차관 주재)를 통한 주관기관 차원의 조정·심의 완료	외교부/ 시행기관
무상 개발협력 전략회의 (n-1년 5월 말 또는 6월 초)	- 무상 개발협력 전략회의(외교부 장관 주재)를 통해 무상 분야 시행계획안 작성,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출	외교부/ 시행기관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심의·의결 (요구액) (n-1년 6월)	- 유·무상 연계 사업 발굴 검토 및 ODA 사업과 국가적 정책·전략의 연계성을 검토하는 전략 부합성 심사 실시 - 차년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심의·의결	국개위 (국조실)
예산 당국 심의 (n-1년 6-11월)	- 국개위에서 의결한 ODA 종합시행계획을 기초로 각 시행기관은 기획재정부 및 국회 측과 예산 협의	예산당국/ 시행기관
예산 확정 및 종합시행계획 업데이트 (n-1년 12월 초-중순)	- 12월 초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전 종합시행 계획(요구액 기준)상의 변동 사항을 업데이트하여 국개위 확정 준비	국조실/ 외교부/ 시행기관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심의·의결 (확정) (n-1년 12월경)	- 차년도 종합시행계획 최종 확정	국개위 (국조실)
사업 실시 (n년)	- n년도 사업 실시를 위한 최종 기획조사 및 수원국 기관과의 약정 체결 등은 전년도(n-1) 예산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며 n-1년 말부터 준비 - 사전 준비 완료 시 국별/기관별 상황에 맞게 사업 실시	시행기관

단계별 시기	내용	주관
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 진행 및 종료 단계)	- 중간/종료 평가를 통한 사업 성과 측정 -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시행기관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사업 진행 및 종료 단계)	- 외교부 이행점검 및 재외공관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ODA 사업 점검 ※ 이행 점검 시 시행기관, 민간 전문가 참여	외교부/ 재외공관

자료: 2026년도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지침(외교부, 2025)

제 2 장 2025 ICT ODA 관리체계 구축 주요 내용

제 1 절 2025년 국제개발협력 주요 정책 문서

1.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¹⁾

-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도 추진계획 구체화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음
- 대외 여건 및 동향
 - (분쟁·재난)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에서의 대규모 분쟁, 수단 내전 등 국제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폭염·화산 폭발 등 각종 재난과 식량·에너지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인도적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미래 대응) 글로벌 협력 의제가 다양화되는 추세 속에서, 재생에너지 3배 확충 등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이 SDGs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외교전략과 연계) 미국, 일본 등 주요 공여국이 자국의 국익 확보를 위해 투자·원조 경쟁을 심화시키고 외교정책과의 일체성을 강화하면서, 대외원조의 전략적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 (개발 자원) 국제분쟁과 기후위기 등 복합적 글로벌 도전 과제로 인해 SDGs 달성 전망이 여전히 비관적인 가운데, 개발 수요와 자원 공급 간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음

1) 해당 파트는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안건(제52-1호, '25.2.20.)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였음

◦ 대내 여건 및 동향

- (국제사회 기여)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걸맞게 ODA를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외교를 강화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자 함
- (전략적 ODA) 공급망 안정화와 해외진출 지원 등 경제안보와 연계된 전략적 ODA를 강화하여 국가 이익과 개발협력의 시너지를 높이고 있음
- (성과 제고) ODA 규모의 양적 확대에 더해, 그에 걸맞은 질적 내실화와 성과 중심의 운영이 필요함

◦ 추진 실적

- (ODA 총규모) 2023년 우리나라의 ODA 총규모는 3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DAC 31개 회원국 중 14위를 기록함
- (ODA/GNI 비율) 0.17%로 전년 수준을 유지함
- (양자협력) 총 23.3억 달러로, 이 중 무상원조가 68.7%, 유상원조가 31.3%를 차지하며, 아시아(49.3%)와 아프리카(20.2%)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 (다자협력) 총 8.4억 불(26.4%)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계은행(59.4% 증가) 및 지역개발은행(18.8% 증가)에 대한 출자·출연 확대에 기인함

◦ 주요 성과

- (ODA 규모 확대) 대한민국 ODA 예산은 2024년 6.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31.1% 증가하였으며,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까지 6.4조 원 달성 목표를 사실상 조기 달성함
- (국제 위상 제고) 미국, 영국, EU 등 선진 공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국제 연대를 확대하였으며, GCF 3억 달러 공여 계획, 서울 AI 정상회의 개최, 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그린·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를 선도함

- (상생의 국익 실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 등과의 EDCF 기본약정(F/A) 확대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필리핀 라구나호 순환도로 건설사업(9.05억 달러, EDCF 역대 최대 규모) 등 신규 대형 프로젝트를 승인함
- (ODA 내실화) 절차 간소화, 재외공관 의견 반영 강화 등 유·무상 분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아프리카·아세안·중남미·중양아시아 권역별 전략 및 국별 종합진단·기관역량진단을 통해 ODA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함. 또한 ODA 통합포털 시스템을 활용하여 집행부진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함
- (OECD 동료검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세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에서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ODA 규모 확대, 정부-시민사회 협력 강화, 그린 ODA 비중 확대, 지원 수단 다양화 등이 주요 성과로 언급됨
- 2025년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및 계획
 - '25년 ODA 확정액 규모는 약 6조 5,010억 원으로, 총 41개 기관이 1,928개의 사업을 추진하며 양자협력 대 다자협력 간 비율은 약 84:16, 유상협력 대 무상협력 간 비율은 39:61 수준을 보임
 - '25년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과 전략목표: △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 지구촌의 공존과 상호 번영 △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 지원 △ 파트너십 고도화
 -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분쟁과 재난 등 글로벌 위기에 대한 적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식량원조 규모를 2024년 1,120억 원에서 2025년 1,901억 원으로 확대함. 또한 젠더·장애 등 포용의료 강화를 통해 취약국 및 취약계층 지원을 집중함
 - (지구촌 공존과 상호 번영) GCF, GGGI, UNFCCC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하여 기후재원을 조성하고,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함. 특히 필리핀

라구나호 순환도로 건설사업(1조 2천억 원 규모)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여 경제·사회 발전 기반을 효과적으로 조성함

- (개도국 혁신과 개발 지원) 전자정부, 통신망, 데이터센터 구축 등 디지털 사회 기반을 조성하고, 민관 패키지사업 확대와 민관협력 전대차관 도입을 통해 개도국의 민간부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원방식을 다변화함
- (파트너십 고도화) OECD DAC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정책 일관성, 현지 권한 위임, 인력 확충, 시행기관 역량을 고려한 ODA 확대의 우선순위를 설정함. 또한 시민사회 협력예산을 2024년 570억 원에서 2025년 6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및 시민사회·기업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함
- 개발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체계 공고화
 - (ODA 성과관리 강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여 중기 ODA 목표, 자원배분 방향, 제도개선 등 종합전략을 2025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임. 또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패키지 협업 사업을 확대하고, ODA 사업의 기획-예산-집행-평가 전주기 디지털화를 추진함. 이와 함께 집행관리 고도화, 사업 변경 절차 명확화,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업 관리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임
 - (현장 중심 ODA) 재외공관 중심의 ODA 현지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사업의 현장 중심성을 강화함. 사업 추진 결과의 환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KOICA 중심의 분야별 대규모 패키지화, EDCF 종합제안을 통한 유·무상 연계 및 기술협력(T/A) 결합, 수원국 맞춤형 특화 패키지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함
 - (대국민 참여 및 인식 제고) KOICA 청년이니셔티브와 EDCF 청년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청년층의 해외 경험을 확대하고, EDCF 아카데미 신설과

PAO(Project Action Officer) 최소 12개월 근무 의무화를 통해 ODA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함. 또한 ODA Korea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획~평가 단계별 문서 공개를 확대하여 정보공개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통 및 홍보 활성화, ODA 백서의 정기 발간 등을 통해 국민 인식 제고와 참여 기반을 확충함

◦ 향후 사업 발굴 방향

- (기본 원칙) 최근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지역별·분야별 전략을 반영하여 ODA 재원배분 방향과 중점 사업 발굴방향을 제시함
 - 특히, 심사·조정 과정에서 정책·전략 부합성, 사업 효과성과 성과관리, 패키지 사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수 사업을 우대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전략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 재원배분 계획
 - (ODA 총규모) 세계 10위 수준 달성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2022년 3.94조 원에서 2025년 6.50조 원까지 증가시킬 계획임
 - (유형별 구성) 유상 37~43%, 무상 63~57%(인정액 기준)의 비율로 추진하고,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유상 60%, 무상 95% 이상(잠정, 약정액 기준) 수준으로 유지함
 - (지역·분야별)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아프리카 디지털 청년 구상, K-실�크로드 협력구상,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등 대외전략과 ODA 전략을 긴밀히 연계함. 이를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중심의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앙아시아와 중남미로 협력 범위를 다변화하고, 대형사업을 확대하여 파급효과를 제고함
- 주요 발굴 분야
 - (그린 ODA) 순환경제, 저탄소 전환, 친환경 모빌리티 등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 수원국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며, 탄소시장 구축,

감축규제 설계,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등 기후 분야의 제도·기술 지원 사업을 확대함. 또한 WB, ADB, GGGI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지속하고, 프로그램 차관이나 보증 등 지원방식을 다각화하며, 모든 신규 유상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F/S)에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적용하는 등 ODA 전 분야에 기후요소를 반영함

- (보건의료) 수원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정책 컨설팅,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설립, 의약품 및 장비 지원,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함. 또한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기초접종률 제고, 응급·만성 질환 관리, 디지털헬스 활용, 식수 및 위생 인프라 확충, 보건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 환경을 조성함
- (과학기술·ICT) 수원국의 과학기술과 ICT 발전 수준 및 수요를 고려하여 6대 분야²⁾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함. 디지털정부, 스마트시티 등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 사업을 지속하고, 맞춤형 컨설팅-인프라 구축-역량강화 등 사업간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며, 현지 정부의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을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병행함
- (식량안보) 기후변화와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원조를 확대하고, 수원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춘 생산·재배기술 전파, 재배환경 개선, 관개시설 구축, 종자 보급·개선, 수산·양식 기술 전수 등을 추진함. 또한 시장 접근성과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식량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임
- (인도적 지원) 무력분쟁, 자연재해 등에 따른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위험관리와 복원력 강화를 포함한 예방적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국제 기구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긴급구호, 재해복구, 전쟁 피해 복원 및 재건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 특히 여성, 아동, 난민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함

2) ①공공행정 ②도시개발 ③농수산업 ④교육 ⑤보건의료 ⑥에너지·기후

- (교육) 초·중등 및 취약계층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ICT 기반의 교육시스템을 강화함. 또한 과학기술, 의료 등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에 대한 지식공유와 고등교육 시스템 전수를 통해 교육 품질을 높이며, 수원국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함
 - (공공행정³⁾) 토지정보, 관세행정, 디지털정부 등 수원국의 행정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제도 컨설팅에서부터 시스템 구축, 교육훈련과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주기적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함
- 중점 고려 사항
- (지역별·국가별) ODA 중점협력국 및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심 기조를 유지하되, 최저개발국·하위중소득국, 전쟁피해국 대상 사업도 지속 지원하며, 국별협력전략(CPS)의 중점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집중 발굴함
 - (사업 대형화) 저성과 사업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적극 고려하고, 기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소규모 신규사업은 재검토하여 ODA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
 - (패키지사업)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부문(기업, NGO 등)의 자원과 역량을 결합한 유·무상 패키지사업을 구상하며, 국조실 주관 사업발굴 협의체를 통해 시그니처 프로그램, EDCF 종합제안, 특화 패키지 모델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함
 - (사업-정책 간 연계 강화) 사업 발굴 시 외교·경제·통상 등 국가 정책과의 전략적·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여 사업과 정책 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정상 외교 및 공급망 협력 수요에 부합하는 패키지사업을 통해 협력성 성과를 극대화함

3) 공공분야의 행정제도 및 시스템 선진화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의 법과 제도 또는 행정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업(단순 역량강화 사업은 미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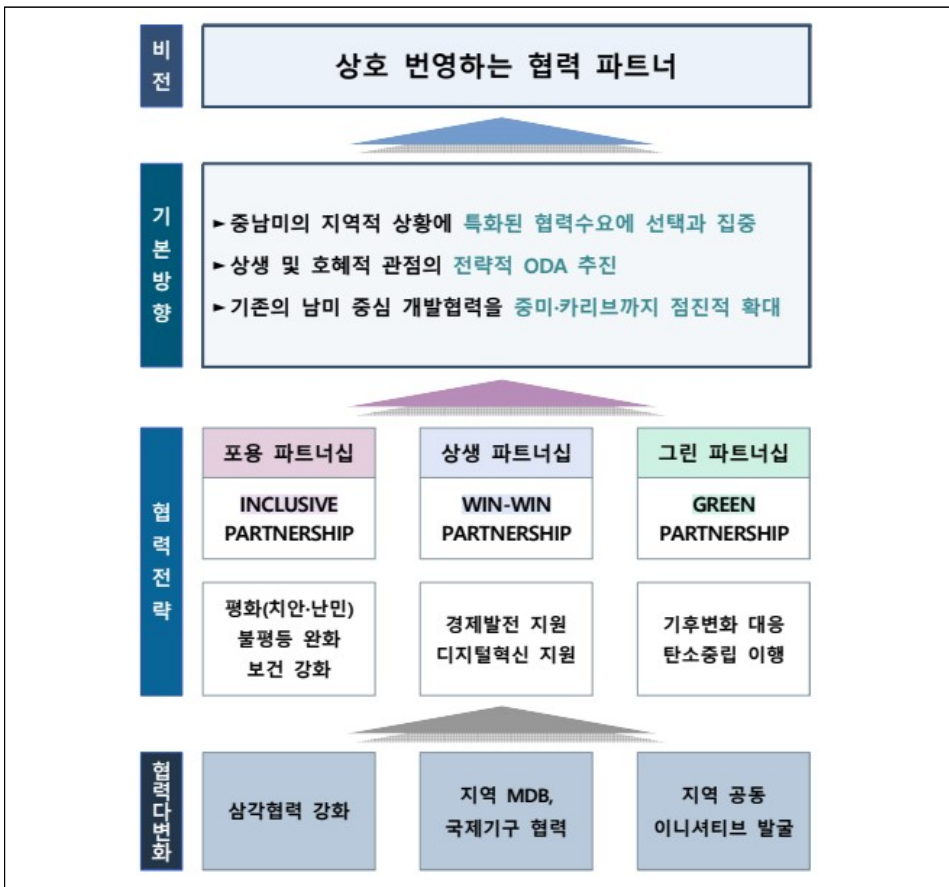
- (인재 양성) 초청연수·장학사업 등 인재양성 ODA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우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산업계·학계와의 협업을 통한 상생형 인재양성 사업과 취업 연계형 장학 지원을 확대함
- (일자리 창출) 해외봉사단, 개발협력인재(YP) 등 청년층의 현장 경험 기회 및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귀국 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여 개발협력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함
- (국제협력) 주요 국제금융기구(WB 등) 및 UN 5대 중점기구⁴⁾를 중심으로 다자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그린, 보건, 인도적 지원 등 분야에서 기구별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함
- (사업성과관리) ODA 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지 않고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강화하고 기관의 사업관리 역량을 검토하며, 사업 간 연계·중복 방지를 위한 예비검토제(N-2)를 활용함. 또한 기획단계에서 성과지표와 기초선 조사 등 성과관리 요소를 반영하고, 계속사업은 자체점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축소·종료 등 출구전략을 마련함

4) UNDP(유엔개발계획), WFP(세계식량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 UNHCR(유엔난민기구), WHO(세계보건기구)

2. 중남미 개발협력전략⁵⁾

- 중남미의 높은 소득수준과 특수한 개발환경을 고려하여, 난민·기후·치안 등 지역 특화 이슈에 대응하고 리튬 등 전략광물 기반의 새로운 경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남미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함

[그림 2-1] 중남미 개발협력 전략 체계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

5) 해당 파트는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안건(제51-1호, 2024. 12.)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였음

- (세부 전략① 포용 파트너십) △치안 역량 강화 및 난민·이주민 지원 △성평등적 문화·제도 확산 유도 및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개발 지원 등 불평등 완화 △보건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
- (세부 전략② 상생 파트너십) △산업인프라 개선 및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제발전 지원 △디지털 혁신 지원
- (세부 전략③ 그린 파트너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이행
- (이행 방안① 중남미 전문인력 육성 및 현지인력 국내 연수사업 강화) 중남미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현지 맥락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주요 협력 분야 연수를 통해 한국의 경험을 확산함
- (이행 방안② 지역별 세부 특성을 반영한 접근)
 - (중미) 유상사업 중심 산업화 기반 확충, 사회안전망 구축, 치안·취약계층 지원
 - (남미) 중·고소득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성장·발전, 불평등 해소 등 차별화된 요소 중심으로 접근
 - (카리브해) 보건·기후대응 등 지역 내 공통 문제와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주요 국가와의 협력 강화
- (이행 방안③ 협력체계·방식의 확대 및 다변화) IDB 등 지역개발은행 및 중남미 내 신흥 공여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ODA를 추진함

3.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안)⁶⁾

- 중앙아시아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전략적 가치를 바탕으로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고, 지역 차원의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함

[그림 2-2]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전략 체계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5)

6) 해당 파트는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안건(제52-4호, '25.2.20.)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였음

- (세부 전략 ① 사람 중심의 협력) △보건의료 역량 강화 △인적자원 육성 지원
- (세부 전략 ② 성장을 위한 협력) △산업화 전환 촉진 △공공행정 투명성·효율성 증진 지원
- (세부 전략 ③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 △농촌 개발 지원 △수자원 고갈·기후위기 대응
- (이행 방안 ① 국별 수요에 기반한 대형 패키지사업 추진) 중앙아시아 각국의 개발수요와 발전단계에 맞춰 우리 강점 분야를 결합한 대형 패키지형 협력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며, 既지원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타 국가 연수사업 기획 등 대표 성공사례의 역내 확산을 도모함
- (이행 방안 ② 기 구축된 협력 네트워크 중심으로 순차적 협력 확대) 기존 우즈베키스탄 중심 협력 네트워크를 중점협력국 전반(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및 일반협력국(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순차적으로 확산하고,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지역 공동 수요를 발굴함
- (이행 방안 ③ 민관협력, 삼각협력 등 협력방식 다변화) 재생에너지·물류 등 기업진출 유망 분야에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현지 既 진출 시민사회와 협력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며, 카자흐스탄 등 신흥공여국과의 삼각협력을 통해 디지털 역량 강화, 물관리 정책 개선 등 지역공동 과제를 해결함
- (이행 방안 ④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개발협력 외연 확장) 물류개선·기후위기 대응 등 한국과의 협력 경험이 부족한 분야에서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하고, 한국이 설립 주도한 GGGI⁷⁾ 등과 협력하여 기후의제 대응 및 협력 외연을 확대함

7)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본부 서울 정동 소재)

4. 한국 ODA 발전방안⁸⁾

- 한국 ODA 발전방안은 기업·전문가·시민사회 의견 수렴, 주관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한국 ODA의 내실화·체계화·대형화를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추진 배경 및 경과)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로, ODA 규모를 2009년 8.2억 달러에서 2023년 31.6억 달러로 확대하였으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대내외 여건 및 동향) 분쟁·재난·기후위기 등으로 ODA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요 공여국은 외교·경제안보 전략과 연계된 ODA를 강화하는 추세임
- (주요 현황) 2025년 ODA 총규모는 6.5조 원으로, 제3차 ODA 기본계획의 '30년 6.4조원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고, 아시아·아프리카 중심의 지원을 유지하면서 중남아시아와 중남미로 협력을 다변화하고 있음
- (정책·전략 체계) 기본계획-종합시행계획-국별(CPS)-지역별·분야별 전략으로 연계된 통합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아프리카, 아세안, 중남미, 중남아시아 전략이 순차적으로 수립됨
- (과제 진단) 전략과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고, 기관·공관 간 협력이 형식화 되어 있으며, 현장 중심 사업관리와 사후평가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함
- (기본 방향)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양적 확대에 걸맞은 질적 고도화를 추구하고, 제4차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내실화·체계화·대형화를 추진함
- (통합적 ODA 사업체계 강화) CPS를 SDGs 지표와 연계하여 신규사업 심사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ODA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수원국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개선함

8) 해당 파트는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안건(제52-2호, '25.2.20.)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였음

- (ODA 효과성 제고) 시그니처 프로그램·EDCF 종합제안 등을 중심으로 부처 간 패키지 협업을 활성화하고, 연수·장학사업을 통합 브랜드 ‘이음(IEM)⁹⁾’으로 운영하여 분야별 대표 프로그램을 확대함
- (민간 및 비ODA 연계) 공공·민간 자원을 결합한 유·무상 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혼합금융·PPP¹⁰⁾·전대차관 등을 도입하여 민간투자 유인을 강화함
-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국조실·주관기관·재외공관 간 협력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부진사업을 조기 발굴·조정하며, 사업 변경·취소 절차와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함
- (성과관리 및 평가) 국별·기관별·분야별 평가결과를 사업심사에 반영하고, 무상분야 통합 사후관리규정¹¹⁾을 마련함
- (전주기 디지털화) 기획-집행-평가-사후관리 전 과정을 연계하는 통합정보 포털을 개편하고,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GIS 기반 사업추천 기능을 강화함
- (국민 참여 확대) 시민사회 및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ODA Korea 플랫폼을 통한 정보공개, 홍보 및 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 인식 제고와 참여 기반을 확충함
- (인력양성 및 전문성 강화) KOICA와 EDCF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ODA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체계를 고도화하며,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강화함

9) 이음(IEM : Inclusive Education Modules): 성장 사다리가 되는 포용적 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모듈형 사업으로, 복지부의 IEM-이종욱 펠로우십, 행안부의 IEM-새마을연수, KOICA의 IEM-CIAT 등이 있음

10)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공공-민간협력):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공공 인프라나 서비스를 공동 제공하는 사업

11) ▲사업선정기준 ▲범위·내용 ▲지원 가능 횟수 및 예산 등

5.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¹²⁾

-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은 ODA 기본계획('11년~, 5년 단위, 총 3차) 등에서 제시한 패키지 전략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정부-시민사회-기업이 연계된 종합적 기획을 강조함
- 추진 배경
 - (수요자 중심 전환 필수)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실질적 전환이 필요하며, 인프라·교육·기술지원·정책자문 등을 묶은 통합적 패키지 접근을 통해 수원국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하고자 함
 - (유·무상 통합 필요성) 유·무상 사업간 분절화를 개선하기 위해 다기관 협력과 통합적 자원배분을 강화하고,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함으로써 전략적 일관성을 높이하고자 함
 -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 기후변화, 감염병 등 복합적 국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 간 연계가 가능한 패키지형 사업 추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운영 현황) 국조실 주관 ODA 사업전략협의회¹³⁾를 중심으로 2021년 이후 8개 패키지사업¹⁴⁾을 운영 중이며, OECD는 이러한 전략적 패키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함¹⁵⁾
- (문제점) 시행기관 간 연계와 사전 기획이 미흡하고, 공관과의 협의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으며, 예산 및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참여 유인이 낮고, 패키지 단위의 종합적 성과관리 체계가 부재함

12) 해당 파트는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안건(제52-3호, '25.2.20.)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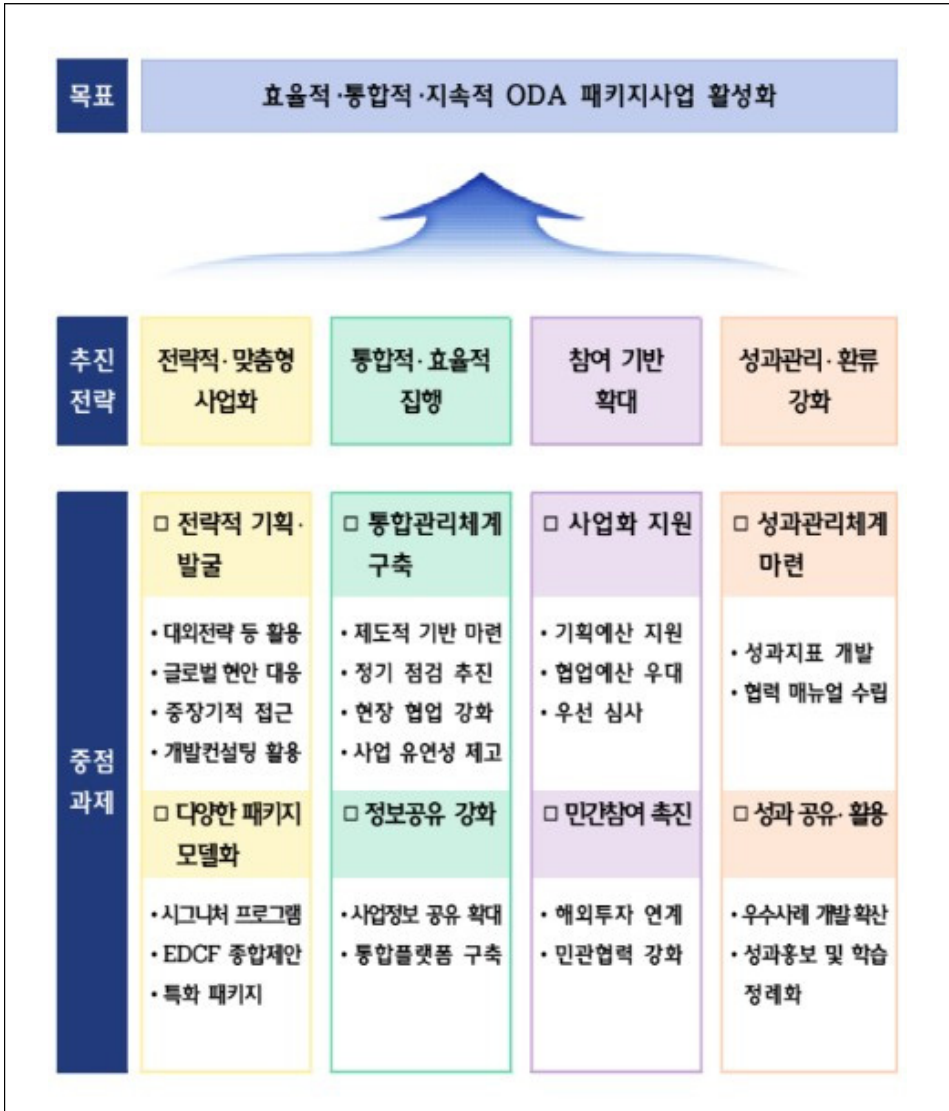
13) 정부 소관 부처, 공공기관, 협회, 시민사회 등 참여(국조실 국제협력개발본부장 주재)

14) ① 가나 농업 ② 이집트 철도 현대화 ③ 키르기스스탄 농가소득 증진 ④ 탄자니아 쌀 가치사슬 강화 ⑤ 인도네시아 전기차 ⑥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⑦ 한-캄 우정의 다리 ⑧ 케냐 교통 패키지

15) “국조실 주도 전략적 패키지화 노력은 바람직하며, 전 시행기관에서 기획이 보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2024년 OECD 개발협력 동료평가, '24.5)

- (추진 방향) 패키지사업의 다각적인 발굴 및 추진, 우수성과 창출 등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에 역점

[그림 2-3]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체계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5)

◦ 중점과제별 추진방안

- 전략적·맞춤형 사업화

- (전략적 기획·발굴) 국가협력전략(CPS)과 정상외교 성과를 반영한 전략적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형·중장기 로드맵 기반 패키지를 확대하며, KSP·DEEP¹⁶⁾·마스터플랜¹⁷⁾ 등 개발컨설팅 결과를 연계사업 기획에 활용함
- (패키지 모델화) KOICA는 보건·교육·농촌개발 등 한국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EDCF는 유상·무상·기술협력을 결합한 종합제안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며,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특화 패키지를 기획하여 분야 맞춤형 성과 창출을 도모함

- 통합적·효율적 집행

- (통합관리체계 구축) 패키지사업은 사업전략협의회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상정 및 협업 지원되며, 정기점검과 공관 주도의 ‘ODA 현지협의체’ 운영을 통해 일관된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현지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조정 절차를 마련함
- (정보공유 및 시스템화) 국조실-주관기관-시행기관 간 사업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기존 ODA 통합정보시스템을 개편·활용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패키지 구성사업의 집행현황 및 성과를 통합 관리함

- 참여 기반 확대

- (사업화 지원) 기획예산 지원과 협업예산 인센티브 지원 검토,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기관의 패키지 기획 참여를 촉진하고, KOICA(무상)-EDCF(유상)-KIND(해외투자개발사업) 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해외투자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함

16)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Program): 한국 발전 경험을 수원국에 제공하는 맞춤형 자문사업

17) 예: 국토관리 마스터플랜 → 스마트 도로관리 패키지(안)

- (민간참여 촉진) 민간전문가·기업·NGO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KOICA-창업진흥원 협업을 통해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참여기업의 현지 실사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사업구성 시 민간부문의 참여 요소를 반영하도록 함
- 성과관리 및 환류 강화
 - (성과관리체계 마련)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패키지 단위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연계 단계별 협력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의 유기적 연계부터 일관성을 확보함
 - (성과 확산 및 환류) 성공사례를 도출하여 타 사업에 적용하고, 국제회의 등을 통해 성과홍보와 학습을 정례화하여 시행기관 간 협업역량을 강화함

6.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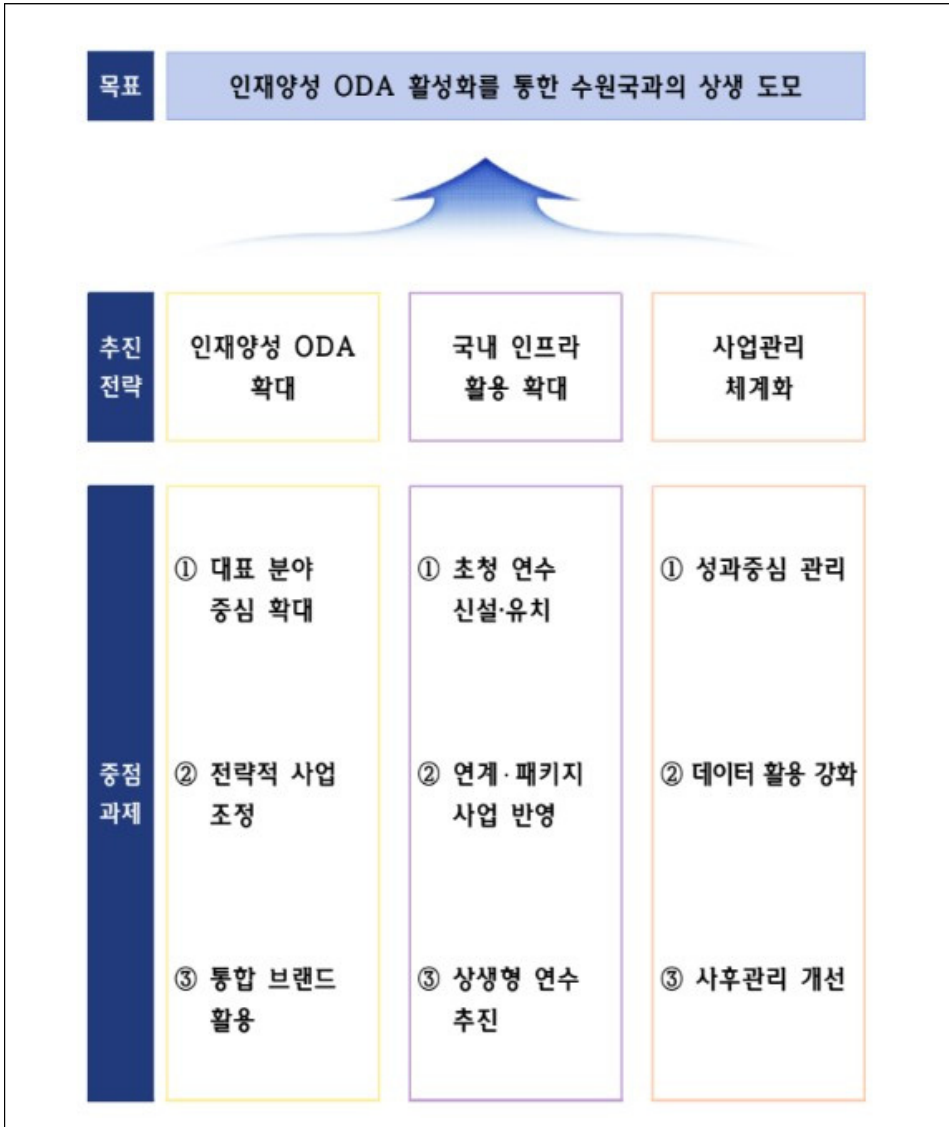
- 개도국의 발전 역량 제고를 위해, 인재양성 사업내실화 및 우리 강점 분야 중심으로 사업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추진 배경
 - (한국 인재양성 ODA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수요 증가) 한국의 인재양성 ODA는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¹⁹⁾, 정상외교 등을 계기로 주요 수원국의 인재양성 협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내 인프라 활용 필요성) 우수한 교육·산업·지자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중심의 연수·장학 사업을 발굴하고, 현지 연수 대비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함
 - (성과제고를 위한 통합적 관리 필요) 개별 기관이 분절적으로 추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 기반의 전략적 조정 및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재양성 ODA의 시너지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 현황
 - (사업 규모) 인재양성 사업은 무상원조 내 연수·장학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2025년 25개 기관이 총 2,01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임
 - (국내 인프라 활용) 국내 연수 참가자는 약 1만 명이며, 주요 연수장학사업은 이종욱 펠로우십, KOICA 단기연수·학위연수, Global Korea Scholarship 등임
- (성과) 1963년 최초 ODA 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62년간 160여 개국, 10만 명 이상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GKS·KOICA 장학사업을 통해 약 2만 명의 개도국 차세대 리더를 배출함

18) 해당 파트는 제5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안건(제53-1호, 2025.4.)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였음

19) “한국 정부가 협력국과 함께 역량 강화를 기획하고, 인력을 교류하는 노력이 ODA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OECD 동료검토, '24년)

- (개선 방향) 전략적 사업 확대 및 인재양성 사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내 연수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며, 사전·사후 관리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함

[그림 2-4]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 추진체계도



- (추진 전략) 인재양성 ODA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핵심축으로 △인재양성 ODA 확대 △국내 인프라 활용 확대 △사업관리 체계화를 설정함
- 중점과제별 추진방안
 - 인재양성 ODA 확대
 - (대표 분야 중심 확대) 교육·보건·ICT 등 대표 분야 중심으로 인재양성 사업 비중을 2025년 약 7%에서 2035년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하며, 이종욱 펠로우십·GKS·KOICA 글로벌연수사업(CIAT) 등 기존 우수 사업 확대와 신규 프로젝트형 사업 발굴을 병행함
 - (전략적 사업 조정)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연수·장학사업의 지역·국가별 전략적 배분을 강화하고, 유사사업 통합과 연수사업 통합수요 조사 강화를 통해 중복을 최소화함
 - (통합 브랜드 활용) 인재양성 사업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ODA 통합연수 브랜드 ‘이음(IEM: Inclusive Education Modules)’을 활용하며, 정부 사업명에 병기하여 브랜드 가시성을 제고함
 - 국내 인프라 활용 확대
 - (초청연수 신설·유치) 현지연수 중 국내 실사가 더 효율적인 과정은 국내 초청연수로 전환하고, 신규 프로젝트에는 국내 연수를 포함하도록 기획하며, 국제기구 주관 연수도 국내에 유치하여 국내 교육 인프라 활용을 촉진함
 - (연계·패키지 반영) 개발건설링 후속 연수사업을 기획하고, 패키지형 사업 구성 시 국내 연수를 결합하여 유·무상·기술협력이 연계된 교육모델을 구현함
 - (상생형 연수 추진) 국내 대학과 산업체 실습, 기업탐방을 연계한 진로개발형 연수를 추진하고, 국내 장학지원·인턴십을 결합한 수원국 미래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함

- 사업관리 체계화
 - (성과중심 관리) 저성과·행사중심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고, 성과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함
 - (데이터 활용 강화) 연수생·장학생 데이터를 통합정보시스템에 현행화하고, 연수시설 및 강사진 DB를 구축하여 기관 간 연계성을 높임
 - (사후관리 강화) 동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내 연수생의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함
- (향후 계획)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및 국가협력전략(CPS)에 인재양성 ODA 과제를 반영하고,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2025년 5월부터 시행하며, 반기별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7. 제4차 개발자원총회(FfD4)

- (개요) 글로벌 복합위기 속 개발효과성과 자원 활용 전략을 재정립
 - 공여국 ODA 예산 축소, 개도국 부채위기, 분절화된 협력 구조 등 복합적 제약 요인이 심화
 - 총회 결과문서는 개도국 수요 및 주인의식 기반의 효과적 개발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ODA의 전략적 활용 및 민간·국내 자원 연계 필요성 강조
 - ICT·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혁신(STI), 데이터통계 역량 강화를 개발자원 체계의 핵심 축으로 제시
-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방향) ODA의 역할 재정립 및 효과성 원칙 강화
 - 공여국 ODA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ODA를 민간·국내 자원 동원의 촉매제로 활용하는 접근이 확대

- 효과성 원칙(주인의식, 조화·정책 일관성, 성과 중심 관리, 투명성)을 재강조 하며 GPEDC 원칙과 연계된 국제적 책무성 강조
- 기후·환경재원과 SDGs 재원 간의 정책일관성, 다년도 지원 등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
- (세부 내용) 총회 결과문서에 반영된 국제개발협력 분야 이행방향
 - (공적개발원조(ODA)) 선진국의 0.7% ODA/GNI 및 최빈국 대상 0.15~0.2% 목표 달성 촉구, 국별 발전전략과 연계한 예산지원 프로그램형 접근 확대, 무상원조 중심의 지원 확대 검토 및 차관 제공 시 기술협력, 역량강화 병행 요구, ODA를 통한 추가 공공·민간 재원 조달 기능 강화
 - (남남·삼각협력) 주권·독립·평등·상호호혜 원칙 기반의 남남협력 지원, SDGs 성과목표 일관성, 지식공유, 지역 기반 공동 프로그램을 통한 삼각협력 강화, 혁신적 재원 메커니즘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삼각협력 모델 확산
 - (다자개발은행(MDBs)) 금융 지속가능성과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연간 대출 한도 3배 확대 장려, 현지통화 대출 확대, 대출 조건 최적화 등 개도국 접근성 개선, 성과측정 프레임워크와 SDGs 연계 강화
 - (분절화 해소 및 영향력 제고) 국가 시스템 활용 확대, 지식공유·역량강화 중심 접근 확대, 다자·공동기금에 대한 비지정 기여 확대를 통한 분절화 완화, 분쟁·기후·재난 대응 등 인도적 위기 완화를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 강조, 정책일관성(PCSD)·범정부 접근 재확인
 - (국내외 개발협력 구조 개선) 국가 주도 재원 프레임워크 기반의 국가전략 강화, 유엔의 조정 역할 강화, ODA 측정의 정확성 제고, GPEDC 등 유관 플랫폼 간 연계 및 시너지 확대
- (시사점) 향후 한국 및 ICT ODA에 대한 함의
 - 효과성과 성과 중심 기조 강화로 정보 기반 ODA 관리·평가체계의 중요성 증가

- 디지털·AI 역량 강화가 개발재원 체계의 핵심 요소로 격상되므로, ICT ODA의 전략적 정렬 필요
- 공여국 예산 축소 추세 속에서 ICT ODA는 민간투자·국내재원 연계의 촉매 역할 강화가 요구됨
- 정보보안, 정보시스템, 데이터 기반 행정 등 한국 비교우위 분야의 기여 가능성 확대
- GPEDC 원칙 재부상에 따라 주인의식·조화·책임성 중심의 협력 모델 필요

8. OECD 2025 개발협력보고서: 개발을 위한 표준

- (개요)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표준(standards)’의 역할 재조명
 - 경제, 사회, 환경, 정부 전반의 표준 설정과 이행이 곧 개발의 핵심 과정임
 - 표준은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무역을 촉진하며,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금융포용을 확대하며, 환경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의 수단으로 제시됨
- (당면 과제 ① 개도국의 참여 한계) 개발도상국은 표준 제정 과정에서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기(seat at the table)’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됨
 - 기술적 역량·재정 자원·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국제표준기구(ISO, IEC 등) 내 영향력이 미미함
- (당면 과제 ② 신흥기술의 비대칭) 인공지능(AI), 5G/6G 등 첨단기술 표준이 주로 선진국과 중국에서 주도되고 있어, 개도국은 상충하는 표준체계 간에서 장기적 경제·정치적 종속 위험에 직면함
- (당면 과제 ③ 표준 도입의 부작용) 높은 표준은 품질 개선 효과가 있지만, 비용 상승·기술 종속·무역 장벽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국가는 표준을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기도 함

- (당면 과제 ④ 지정학적 불확실성) 글로벌 기술 경쟁, 산업정책 강화, 기후변화 압력 등으로 국제 표준 질서가 분절화되고, 표준의 탈동조화(decoupling) 위험이 증가함
 - (나아갈 방향① 표준화 전환 가속화 지원) 개발도상국이 ‘표준 부재 → 채택 → 적용 → 제정(authoring)’의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인적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함
 - (나아갈 방향② 정치경제적 맥락 고려)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 기술 전문성, 재정 여력, 국가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표준 전략 설계가 필요함
 - (나아갈 방향③ 표준 거버넌스 강화) ISO, IEC 등 국제기구에서의 개도국 대표성 확대 및 참여형 표준 제정(stakeholder consultation)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나아갈 방향④ 지속가능성과 포용성 확보) 기후변화, 기술격차,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을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 및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정책과 연계해야 함
 - (나아갈 방향⑤ 위험 관리) 선진국이 자국 표준을 일방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표준 종속(Standard Dependency)과 탈동조화(Decoupling)의 위험에 대비한 다자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Part 1) 개발을 위한 표준의 필요성
- 표준(Standard)은 단순한 기술 규격이 아니라 개발의 핵심 메커니즘, 즉 삶의 질 향상(Living Standards)의 기반으로 제시됨
 - 표준은 생산성 향상, 무역 촉진,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환경 피해 최소화 등 다양한 개발 성과를 촉진함
 - (표준의 발전단계) 부재(Absence) → 채택(Adoption) → 수정/적용(Adaptation) → 제정(Authoring)으로 발전하며, 각 단계는 국가의 기술·산업·정치 역량 수준에 따라 달라짐

- 표준은 시장 실패(정보 비대칭, 조정 실패, 외부효과)를 교정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며 신뢰를 형성함
- 반면, 부적절한 표준 도입은 비용 증가, 기술 종속,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표준화 과정은 국가 발전경로(Development Pathway)의 일부이며,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정치·경제적 선택임
- (Part 2) 개념적 틀
 - 표준은 경제적·사회적 협력의 제도적 언어로서,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글로벌 협력을 촉진함
 - 표준의 3대 유형
 - 호환성 표준(Compatibility) - 기기·시스템 간 상호운용 보장 (예: 철도 게이지, TCP/IP)
 - 측정 표준(Measurement) - 정확성·일관성 확보 (예: 미터법, GDP 산출 기준)
 - 품질 표준(Quality) - 제품·서비스의 최소 요건 규정 (예: ISO 9001, 연료 효율 기준)
 - 표준은 정보 비대칭 해소, 조정 실패 해결, 외부효과 완화를 통해 시장 효율성을 높임
 - ‘하나의 표준(one-size-fits-all)’ 원칙과 현지화(adaptation) 간 균형이 중요하며, 개발도상국은 국제표준을 그대로 채택하기보다 자국의 기술·행정 역량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위험 요인) 표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생산과 수출이 중단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하게 완화되면 품질 저하와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 표준이 선진국 중심으로 편향될 경우 개발도상국은 기술 종속의 위험에 직면하게 됨

- (정책적 제언) 개발도상국은 표준의 수용자(taker)에서 참여자(author)로 전환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WTO TBT/SPS 등) 참여가 필요함
- (Part 3) 개발을 위한 표준의 역할
 - 표준은 사회·경제·환경·거버넌스 전 분야에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견인하는 촉매임
 - 주요 분야별 표준의 역할
 - 사회(Society): 교육 분야에서는 PISA와 TIMSS 등 국제 학력평가 표준을 통해 학습성과를 개선하고, 보건 분야에서는 최소품질기준(MQS) 도입을 통해 진료 품질과 환자 안전을 향상함
 - 경제(Economy): 국제표준 도입은 생산성 향상과 수출시장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인증비용과 기술격차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므로, 품질인프라(QI) 구축과 기술표준 도입이 필수적이며, 노동표준 강화와 공정 경쟁 촉진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Environment): 수질·대기·폐기물 관리와 에너지 효율 등 환경표준을 강화하여 녹색전환(Green Transition)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순환경제·탄소배출 저감 분야의 국제표준 도입이 필요함
 - 거버넌스(Governance): 인사관리(HRM), 재정관리(PFM), 조달시스템 등 행정 분야의 표준화를 통해 정부 역량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 방지 및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
- (Part 4) 정책적 시사점
 - 표준은 단순 기술규격이 아닌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 도구로서, 각국의 여건에 맞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저소득국) 국제표준의 도입과 적용 단계에 집중하여 기초 품질인프라(QI)와 제도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소득국) 표준의 지역별·산업별 적용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산업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함
- (고소득국) 인공지능(AI), 5G/6G, 데이터 거버넌스 등 신기술 분야에서 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개발도상국의 표준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
- 특히 AI·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 설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향후 개발 격차 축소의 핵심 과제임
- 정책 과제
 - 표준정책을 산업·무역·교육정책과 연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의 표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비용 완화 및 교육 제공이 요구됨
 - 국제표준기구 참여를 확대하고 역내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함

제 2 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DA 사업 통합수요조사

1. 통합수요조사 주요 내용

-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중심 전략적 필요에 따른 대상국 선정, 과기정통부 소관 ODA 사업 개요 설명 후, 협력국의 참여 의사와 함께 선호하는 사업 형태를 확인하는 설문 실시
- 과기정통부 소관 ODA 사업의 분절적 수행을 지양하고 통합 관리체계를 통한 협력 수요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과기정통부 ODA 사업의 전략적 수행과 효과성 제고 추진
- 2027년 과기정통부 ODA 사업 통합수요조사 진행 과정
 - '25년 8월, 과기정통부 소관 ODA 사업 시행기관(KISDI, NIA, NIPA, NRF, RAPA)별 통합수요조사 희망 국가 조사 및 사업별 PCP 내용 확인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총 28개국)
 - '25년 8월, 수요조사 대상국 과학기술·ICT 주관부처 및 재외공관 컨택 정보 확인
 - '25년 8월 말, 대상국 과학기술·ICT 주관부처 개별 업무 연락, 통합수요조사 배경 설명 및 참여 의사 확인
 - '25년 8월 말, 대상국 재외공관 업무 연락, 통합수요조사 배경과 협력국 수요 관련 내용 공유 및 대사관 측 의견 수렴
 - '25년 9월, 과학기술 및 ICT 주관부처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해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28개국 52개 부처에 과기정통부 통합수요조사 공문을 발송함
 - '25년 9월, 외교부 개발협력과를 통한 통합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재외공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함
 - '25년 11월, 과기정통부 및 시행기관 간 협의를 거쳐 '27년도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국을 선정하고 조사 일정에 대해 논의함
 - 과기정통부 15개 사업에 대한 28개 협력대상국 수요 파악 결과, 현재 15개국에서 공식으로 협력 수요 제기함(개별 수요 9개국)

제 3 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ODA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1. 사전타당성 조사 주요 고려사항²⁰⁾

가. 수원국의 수요 확인

- 수원국 내 우선순위, 국제사회 지원 현황 등 현지 여건
- 수원국 관계기관의 사업요청서(PCP) 및 수원총괄기관의 공식요청서 제출 필수
- 재외공관과의 사업 발굴 현황 공유 및 관련 상세 내용(일시, 결과 등) 시행 계획에 반영·제출 필요

〈표 2-1〉 수원총괄기관 공식요청서 포함 내용(예시)

-
-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및 전략과 ODA 사업의 부합성
 - 수원국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 및 우선순위 부여
 - 수원국 정부의 ODA 사업 지원 요청 등
-

나. 중복사업 방지 및 사업 간 연계

- 우리나라, 여타 공여국 또는 국제기구 추진 사업과 중복 방지
- 타 부처 ODA 사업과 연계 적극 도모
- 2026년 예비 연계사업²¹⁾* 우선 고려

20) 해당 파트는 외교부 개발협력과 「2026년도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지침」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였음

21) 2026년도 KOICA 연계 협의 진행 중인 사업 및 ODA 통합정보포털에 유·무상 연계사업으로 등록된 사업

다. 사업계획의 구체성

- 명확한 대상국(대상 지역) 선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 프로젝트·프로그램·개발건설링은 사전타당성조사 필수
- 사업 발굴 시 수원국의 활용 역량 및 사업추진 여건(지리적 특성, 통신환경 등) 고려
- 사업지 방문, 수원기관 면담, 외부기관 조사, 위험관리 방안 등 포함
- 사업발굴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행에서 배제하여 이해상충 방지

〈표 2-2〉 사전타당성 조사 필요 항목(예시)

① 사업 대상국 현황 조사 - 대상국 일반 현황 - 해당 분야, 사업 대상 지역 분석 - 수원총괄기관 및 관계기관 분석 - 사업 관련 법·제도적 환경 분석 - 타 공여기관, 국제기구, 우리 정부 유사사업 조사	③ 사업 내용 - 사업 목표 및 달성 수단 - 사업 구성 요소 - 이해관계자 및 수혜 대상 분석 - SWOT 분석 - 위험관리 계획
② 사업 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 - 경제적 타당성 - 기술적 타당성 - 수원국의 기술수용성 (과학기술·ICT ODA의 경우 필수) - 사회문화적 타당성 - 환경적 타당성 - 지속가능성	④ 사업수행계획 - 사업관리 및 수행체계 - 수원국과의 역할 및 분담사항 - 타사업과의 연계 및 중복 방지 계획 - 세부 일정 및 예산계획 - 지속가능성 및 사후관리 방안 - 성과지표 및 평가계획

※ 사업유형·분야·규모 등에 따라 세부 항목 변동 가능

라. 중점협력국 위주 지원: 국가협력전략(CPS)²²⁾ 중점협력분야 우선 고려

- 전체 양자 ODA 예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국에 배정
- 국별 양자 ODA 예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 분야에 배정

22) 국별 CPS는 www.odakorea.go.kr에서 확인 가능

〈표 2-3〉 3기 중점협력국 및 국가협력전략(CPS) 중점협력분야(가나다 順)

수원국	CPS 중점협력 분야
가나	① 지역개발 분야 ② 보건 분야 ③ 교육 분야 ④ 에너지 분야 ⑤ 교통 분야
네팔	①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② 교육 분야 ③ 지역개발 분야 ④ 에너지 분야
라오스	① 물관리 분야 ② 보건위생 분야 ③ 에너지 분야 ④ 지역개발 분야 ⑤ 교육 분야
르완다	① 농업 분야 ② 교육 분야 ③ ICT 분야
몽골	① 교육 분야 ②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③ 공공행정 분야 ④ 교통 분야 ⑤ 기후환경 분야
미얀마	① 공공행정(거버넌스) 분야 ② 지역개발 분야 ③ 교통 분야 ④ 에너지 분야 ⑤ 교육 분야
방글라데시	① 교육 분야 ② 교통 분야 ③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④ 공공행정 분야

수원국	CPS 중점협력 분야
베트남	① 교통 분야 ② 보건위생 분야 ③ 환경 분야 ④ 교육 분야 ⑤ 공공행정 분야
볼리비아	① 보건위생 분야 ② 지역개발 분야 ③ 교통 분야 ④ 에너지
세네갈	① 지역개발 및 농림수산 분야 ② 교육 분야 ③ 보건의료 분야 ④ 교통 분야
스리랑카	① 교육 분야 ② 교통 분야 ③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④ 지역개발 분야
에티오피아	① 교통·에너지 분야 ② 지역개발 분야 ③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④ 교육 분야
우간다	① 지역개발 분야 ② 교육 분야 ③ 보건위생 분야
우즈베키스탄	① 보건의료 분야 ② 교육 분야 ③ 공공행정(ICT) 분야 ④ 지역개발 분야
우크라이나	① 교통 분야 ② 산업 분야 ③ 보건위생 분야 ④ 공공행정 분야

수원국	CPS 중점협력 분야
이집트	① 교통 분야 ② 환경·에너지 분야 ③ 공공행정 분야 ④ 교육 분야 ⑤ 통신 분야
인도	① 지역개발 분야 ② 교통 분야 ③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④ 환경 분야 ⑤ 그린에너지 분야 ⑥ ICT 분야
인도네시아	① 교통 분야 ② 공공행정 분야 ③ 환경보호 분야 ④ 물관리·보건위생 분야
캄보디아	① 교통 분야 ②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③ 교육 분야 ④ 지역(농촌)개발 분야
콜롬비아	① 지역개발 분야 ② 교통 분야 ③ 산업 분야 ④ 평화 분야
키르기스스탄	① 환경 분야 ② 농림수산 분야 ③ 공공행정 분야 ④ 보건위생 분야
타지키스탄	① 산업 분야 ② 교육 분야 ③ 에너지 분야 ④ 농림수산 분야 ⑤ 교통 분야

수원국	CPS 중점협력 분야
탄자니아	① 물관리 및 보건 분야 ② 교통 분야 ③ 교육 분야 ④ 에너지 분야 ⑤ 지역개발 분야
파라과이	① 공공행정 분야 ② 교통 분야 ③ 보건 분야 ④ 지역개발 분야
파키스탄	① 물관리·보건위생 분야 ② 에너지 분야 ③ 지역개발 분야 ④ 교통 분야
페루	① 공공행정(ICT) 분야 ② 환경보호 분야 ③ 보건위생 분야 ④ 교통 분야
필리핀	① 교통 분야 ②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③ 기후변화·환경 분야 ④ 지역개발(식량안보) 분야 ⑤ ICT 분야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4)

2. 사전타당성 조사 주요 내용

- 2024년 기실시된 2026년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에 대한 통합수요조사에서 복수의 사업에 대한 협력 수요를 제기한 5개국(라오스,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페루)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함

◦ [공동] 라오스

- '26년 무상원조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에 대해 공동 수요가 있는 라오스는 과기정통부 시행기관 간 합동으로 통합 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지 사전타당성 조사 수행
- KISDI가 담당하는 라오스 PCP 사업 수요 주제는 '디지털경제 정책 시행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 수립'이며, NIA는 '범국가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수요 주제로, 라오스 기술통신부(MTC)와 협력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표 2-4〉 라오스 일정

세부 일시	주요 내용	비고
2025.02.10.	• 라오스 기술통신부(MTC) 및 루앙프라방 시청 등 정보접근센터 신규 구축 관계기관 면담 - 정보접근센터(IAC-DX) 운영 계획, 강사 섭외, 유지비용 확보 방안, 세계유산 내 실내공사 가능 여부 논의 • 정보접근센터 신규 구축 후보지(루앙프라방 시청) 실사	NIA
2025.02.11.	• 정보접근센터 신규 구축 후보지(기술통신국 사무실) 실사	NIA
	• 라오스 수원기관 기술통신부(MTC) 회의 - 라오스 빅데이터 인프라·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수요 제기 - 공공데이터 법·제도 정비 및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개발 필요성 식별	KISDI, NIA
2025.02.12.	• 라오스 기술통신부(MTC) 2차 회의 - 국제협력 방안 및 타 공여기관 유사사업 관련 논의 •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방문	KISDI, NIA
	• 라오스 제1정보접근센터 운영 현황 점검	NIA
2025.02.13.	• 라오스 수원총괄기관(MPI, 기획투자부) 회의 -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 협력 방안 논의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라오스 사무소 방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비엔티안무역관 방문	KISDI, NIA

〈표 2-5〉 라오스 참여연구진

라오스 연구진 구성	
시행기관 담당자	외부 민간 전문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국제협력연구실 임동민 부연구위원, 박세영 연구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희진 교수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 iDX 협업지원센터 협업총괄실 임성준 실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마이데이터·글로벌팀 김병곤 책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글로벌기획팀 임진수 선임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KIPA): 제도관리팀 남수정 수석연구원

◦ 분야별 타당성 검토

- KISDI

- (정책적 측면) 라오스 정부가 디지털경제를 향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디지털경제 전략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데이터 수집·공개·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한국의 경험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금번 사전타당성 조사로 2026년 사업 시행 시 특정 분야 (농업, 교통 또는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를 선정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음. 특히 현재 다른 나라 개발협력기관 또는 국제개발 기구와 데이터 측면에서의 협력은 없는 상황으로, KISDI가 국립데이터센터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면 라오스의 데이터 산업 발전을 통한 디지털 경제 성장의 기반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기술적 측면) 기존의 글로벌 사례와 표준을 참고하여 라오스에 적합한 데이터 거버넌스 및 디지털경제 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임. 국제 벤치마킹을 통해 라오스는 디지털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글로벌 성공 사례를 취득하고, 자국 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음. 오픈소스 솔루션 통합은, 한국의 공공데이터 포털 사례처럼 비용 절감과 확장성을 고려할 때 라오스에 매우 적합하고 타당한 전략임. 데이터 거버넌스 표준화는 ICT 인프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라오스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기술적 타당성이 인정됨.

특히 데이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국제 표준인 ISO/IEC 27001(정보보안), ISO/IEC 38505-1(데이터 거버넌스) 등의 적용이 가능하며, DCAT(데이터 카탈로그) 등의 국제적인 데이터 관리 방식도 고려가 가능함

- (사회·경제적 측면) 라오스 정부는 디지털경제 발전을 국가 중요과제로 설정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21년 디지털경제 비전·전략·계획(2021-2040)을 수립·시행 중이어서, 관련한 데이터 분야 시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아세안 10개국 중 디지털경제 성숙도에서 9위를 기록하고 있는 라오스는 상기 디지털경제 계획으로 국가 GDP에서 디지털경제 비중을 현재 3%에서 5%로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발표된 계획에는 데이터 정책, 데이터 거버넌스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외부 지원이 필요함. 라오스의 디지털경제 실행에 따른 효율성 제고 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이면에 있는 사회적 역동성 증대와 불균형에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고려도 필요함. 디지털경제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 기대가 있지만, 외환 유동성 제한과 대외부채 부담 등 최저점은 지났지만 상존하는 어려움이 경제·사회에 미칠 수 있는 어려움이 증폭될 수 있어 항상 고려해야 함

- NIA

- (정책적 측면) 라오스 정부는 국가 ICT 개발 전략 2025 및 Vision 2030의 이행을 위해 도농 간 디지털 격차 해소(도시 60%, 농촌 20%)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디지털 접근 기회 확대를 위한 IAC 구축 수요가 존재함. 기술통신부 및 루앙프라방 시청 등 수원기관의 재정적 지원은 어렵지만,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시급히 대응하며 부시장급이 직접 소통하는 등 수원국의 협력 의지는 매우 높은 상황임. 루앙프라방시는 UNESCO 세계문화유산 지역으로, 실내 공사에도 시청의 승인이 필요함. 공사 관련 문서는 사업 승인 후 제공 예정임

- (기술적 측면) 루앙프라방 시청 내 HW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나, 기술통신국 소속 공무원들이 OS 등 기초적 ICT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은 가능함. 지역 전문대학 내 ICT 학과가 존재하여 향후 ICT 교육 및 기술적 협력 가능성이 있음. 다만, IAC 운영에 필요한 전문 엔지니어 및 교육 인력은 부족하여, 활용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외부의 전문적 지원이 요구됨
 - (사회·경제적 측면) 사업 초기 운영 인력 등은 일부 분담이 가능하나, 시청 자체 예산으로 별도 투자나 수도세 납부조차 어려운 재정 여건에 처해 있음. 4년간 의무 운영 조건 및 유지관리비 부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NIA에 운영비 1년 분담 요청을 한 바 있음. 주민, 관광객 대상 교육비, 시설 개방, 인쇄비 등을 통해 일부 운영비 충당 계획이 있음. 루앙프라방 내 공무원 대상 ICT 교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IAC를 통해 약 3만 명의 수혜자 발생 및 지역 디지털 전환 촉진이 기대됨. 지역 내 모바일 사용률이 높고 QR코드 기반 결제가 일반화되어 있어 정보접근성은 양호한 편임. 시청은 Facebook, 브로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주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문화적 장벽은 적으나 계층 간 인식 차이는 존재함
 - (입지적 측면) 라오스 루앙프라방 IAC 구축 후보지 1안은 시내 중심 접근성 우수하나 후보지 2안은 기술통신국 내 공간 협소, 접근성 낮아 교육시설로 부적합
- 방글라데시
- [ICT 기술정책협력] 방글라데시 Teletalk 5G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생태계 구현 역량 강화 및 로드맵 수립 지원
 - 방글라데시 Teletalk의 5G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 팩토리·항만·시티 구현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한국 친화적인 정책 환경 조성과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G 및 스마트 생태계 정책 자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표 2-6〉 방글라데시 일정

세부 일시	주요 내용
2025.01.12.	• 방글라데시 우정정보통신기술부(MoPTIT) 우정통신청(PTD) 1차 회의 - 방글라데시의 5G 도입 현황과 계획, Teletalk의 역할, 프로젝트 목표 논의 • 방글라데시 국영 이동통신사(Teletalk Bangladesh Limited) 회의 - 방글라데시 5G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방안 논의 - 스마트시티, 스마트항만, 스마트공장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협력 방안 모색 -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과 기술 지원 필요 사항 파악
2025.01.13.	• 방글라데시 수원총괄기관(ERD, 재무부 대외협력청) 회의 - 한-방글라데시 개발협력사업 협조 요청 - 프로젝트 범위 조정 및 명확화 - 연수 대상 및 예산 논의 - 타 공여기관 및 사업 중복 여부 검토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방글라데시 사무소 방문
2025.01.14.	• 주방글라데시대한민국대사관 방문 • 방글라데시 통신규제위원회(BTRC) 회의 - 방글라데시 5G 관련 규제 준비도 논의
2025.01.15.	• 방글라데시 우정정보통신기술부(MoPTIT) 우정통신청(PTD) 2차 회의 - 방글라데시 ICT 개발협력사업 수요 및 추진방향 논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다카무역관 방문 • 한국수출입은행 EDCF 다카사무소 방문

〈표 2-7〉 방글라데시 참여연구진

방글라데시 연구진 구성	
시행기관 담당자	외부 민간전문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국제협력연구실 김지원 부연구위원 장지원 연구원	고려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 김성규 센터장/교수 다쏘시스템 코리아: 김은광 기술대표

- 정책적 타당성: 방글라데시 정부는 「8차 중기 개발계획(2020-2025)」, 「방글라데시 전망계획 2021-2041」, 「국가 ICT 정책 2018」, 「인공지능 국가전략 2020」, 「스마트 방글라데시 전략」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ICT 기반 산업 혁신, 5G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생태계 구축 등을 국가 중장기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방글라데시 정부는 5G 도입을 국가 디지털화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항만 물류의 효율성 증대, 제조업의 자동화, 스마트시티 구현을 통해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부의 정책 방향과 디지털 전환 목표, 국제협력 확대 의지는 5G 도입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인프라 수준의 한계와 낮은 기술 역량을 감안할 때 전면적 5G 도입보다는 시범 사업을 통한 점진적 확대가 바람직함. 한국의 ICT ODA 경험을 활용한 기술 자문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병행될 경우, 방글라데시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협력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기술적 타당성: 방글라데시는 1억 2천만 명 이상의 인터넷 가입자와 1억 9천만 명의 모바일 사용자를 기반으로 디지털 연결성이 빠르게 향상되었으나, 열악한 유무선 인프라(속도·품질 저하, 정전, 광섬유 한계 등)는 디지털 전환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Teletalk은 5G 시험운영을 통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항만·제조·도시 분야 중심의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은 자원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당함. 5G는 스마트항만의 장비 원격제어, 스마트팩토리의 IoT·AI 통신, 스마트시티의 eMBB/URLLC 기능 등 산업별 맞춤형 활용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로드맵 및 정책 자문이 필요함
- 사회·경제적 타당성: 5G는 산업 자동화, 물류 효율화, 디지털 헬스케어, 교육·금융 서비스 혁신을 통해 산업구조 다각화와 생산성 향상,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의류산업·항만 물류 경쟁력 개선, 의료 접근성 제고 등은 방글라데시의 사회경제적 현안 해결과 연계됨. 스마트 방글라데시 전략, 국가 ICT 정책, 중장기 개발계획(Perspective Plan 2021-2041) 등과도

부합하며, 사회 취약계층(여성·농촌·빈곤층)의 디지털 포용을 강화해 사회
분배적 효과도 기대됨. 단, 초기 투자비용, ARPU 저하, 인력 부족 등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민간·국제기구 간 협력이 필요하며, 신중한 단계별
5G 구축 전략이 요구됨

◦ [공동] 우즈베키스탄

- '26년 무상원조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에 대해 공동 수요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과기정통부 시행기관 간 합동으로 통합 조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현지 사전타당성 조사 수행
- KISDI가 담당하는 우즈베키스탄 PCP 사업 수요 주제는 '우즈베키스탄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빅데이터 관리 체계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며, KISA는 'AI 활용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대응체계
활용'을 수요 주제로, NIA는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신규 구축'을 수요 주제로,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MIDT)와 협력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표 2-8〉 우즈베키스탄 일정

세부 일시	주요 내용	비고
2025.01.21.	•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방문 • 우즈베키스탄 수원기관 디지털기술부(MIDT) 차관 주재 부처 회의 - 우즈베키스탄 빅데이터와 AI 정책 현황 파악 - 협력 수요 사업별 우선순위 파악	KISDI, KISA NIA
2025.01.2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타슈켄트무역관 방문 • IT Park 상주기업(RealSoft, Mohirdev) 면담 - 민간 분야 디지털전환 현황 및 디지털 분야 정부-민간 협력 동향 조사 • AI Institute 방문 면담 - 우즈베키스탄 AI 정책 동향 및 주요 현안 조사	KISDI, KISA
	• 디지털교육개발센터 우르겐치 시설 담당자 1차 면담 • 디지털교육개발센터 시설 현황 점검	NIA

세부 일시	주요 내용	비고
2025.01.23.	- 디지털기술부(MIDT) AI 부서 회의 -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 수행 협의	KISDI
	- 디지털기술부(MIDT) 사이버보안 부서 및 사이버보안센터 회의 -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 수행 협의	KISA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방문 - East Telecom 방문 - 우즈베키스탄 통신 현황 및 공공데이터 운영 현황 조사	KISDI, KISA
	- 디지털교육센터 우르겐치 시설 입지 조사 - 디지털교육개발센터 우르겐치 시설 담당자 2차 면담	NIA

〈표 2-9〉 우즈베키스탄 참여연구진

우즈베키스탄 연구진 구성	
시행기관 담당자	외부 민간전문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국제협력연구실 황준호 연구위원, 서소영 부연구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글로벌협력팀 홍준기 책임연구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기술경영학과 박가영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이삼열 교수

◦ 분야별 타당성 검토

- KISDI

- (정책적 측면) 본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신우즈베키스탄 개발전략(2022-2026)」, 「국가 AI 전략(2024-2030)」 등 국가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전략과 정합성이 높음.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및 표준화 미비, 부처 간 연계 부족, 빅데이터 분석 기반 행정 역량 부족 등을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포털(my.gov.uz)의 낮은 활용률과 데이터 관리의 비효율성 등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수원기관인 디지털기술부는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및 빅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을 위한 기술·정책 협력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평가됨

- (기술적 측면) 우즈베키스탄은 전자정부 시스템과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 일정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전문 인력 부족, 시스템 간 연계 미비, 빅데이터 처리 역량 부족 등의 기술적 과제가 여전히 존재함. 이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인력 양성, 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에 대한 협력이 필요함
- (사회·경제적 측면)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는 행정 효율성 향상, 디지털 기반 신산업 육성, 정부 운영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 핀테크, 헬스케어 등 민간 부문의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동시에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확산은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디지털 격차 완화, 정부의 투명성 제고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기대되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KISA

- (정책적 측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 「국가 AI 전략(2024-2030)」 등을 통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와 AI 기술 활용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정부는 AI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마련,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에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수원국의 사이버보안 및 AI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기술적 측면) 한국과의 우호 관계 기반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확대 등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최근 높아지고 있어, 본 협력사업을 통해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및 침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의 안전한 디지털경제 발전 및 사이버보안 비전 달성에 있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경제적 측면) 우즈베키스탄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는 디지털경제

기반 조성과 안전한 정보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해킹, 금융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온라인 금융, 전자상거래, 핀테크 산업 등 디지털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한국형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통해 정부 관계자, 대학생, 실무자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디지털 생태계 개선과 안전한 ICT 환경 조성이 기대됨

- NIA

- (정책적 측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신우즈베키스탄 개발전략 2022-2026」,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을 통해 디지털 교육 확대, ICT 인재 양성, 전자정부 시스템 강화,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교육 접근성 제고, ICT 기반 실무형 교육, 소외 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함. 「One Million Uzbek Coders」, 「ICT4Girls」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교육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며, IAC는 이들 정책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교육 및 디지털 전환 전략 실현을 위한 핵심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됨. 운영기관인 디지털기술부 및 우르겐치 IT Park는 정부 및 민간 협력을 통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IAC 운영 예산도 자립형 수익 모델과 정부·국제기구·기업의 재정 협력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
- (기술적 측면) 우즈베키스탄의 ICT 인프라는 빠르게 확장 중이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함. 특히 수도 타슈켄트를 제외한 지방 도시의 인터넷 보급률은 낮은 편임. IAC가 구축될 우르겐치 지역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250Mbps 이상의 고속 네트워크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5G 기반 통신망 확대도 진행 중임. 우르겐치 IT Park와 디지털기술부는 ICT 인프라 뿐만 아니라 전문 교수진과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IT 교육기관·스타트업 지원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IAC의 기술적 운영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음. IAC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며, 국내외 기업·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기술의 지속적 도입과 커리큘럼 업데이트가 가능함

- (사회·경제적 측면)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경제 활성화 및 ICT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고도화, 고용 창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AI, 데이터 분석 등 고부가가치 직군의 수요 증가에 따라 ICT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IAC를 통한 실무형 교육 인프라 구축은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전환과 경제성장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여성, 청년,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은 지역 간·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 사회통합 및 포용적 성장 기반 마련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더불어, 지역 내 ICT 교육 수요 증가와 주민 참여 유도 가능성이 높아,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통한 사회적 편익 증대도 기대됨
- (입지적 측면) IAC는 우즈베키스탄 호레즘 지역 우르겐치시 틴칠릭 거리 6a 소재 디지털기술부 소유 건물(350㎡)에 구축될 예정으로, 도심과 인접해 대중교통, 차량, 택시 등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함. 인근에는 IT Park Urgench, 교육기관, 행정기관, 기업 등이 밀집해 있어 교육과 창업의 수요가 풍부함. 센터는 AI 개발실, 디지털 교육실, 회의실, 디지털 라운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네트워크 및 전력 인프라, 스마트 강의 시스템, 연구 장비 등이 갖춰져 있음. 우르겐치는 자연재해 위험이 낮고 인프라 환경이 안정적이며,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 등이 사용되는 다문화 도시로 다국어 기반 교육 운영도 가능함.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도 용이함

◦ 파키스탄

- [ICT 기술정책협력] 디지털 파키스탄 정책 가속화 :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현 전략 및 계획 수립 지원
- 파키스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광케이블 기반 브로드밴드 확산 전략 및 정책 자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표 2-10〉 파키스탄 일정

세부 일시	주요 내용
2025.02.25.	• 파키스탄 수원기관 정보통신기술부(MoITT) 1차 회의 - 사전타당성조사 목적 및 프로젝트 개요 소개, 협력수요 파악 • 파키스탄 정보통신기술부(MoITT) 국장 면담 - 디지털 파키스탄 정책 이행 전략 수립 프로젝트 논의 • 주파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방문
2025.02.26.	• 파키스탄 수원총괄기관(EAD, 경제사무처) 관계자 면담 - 수원총괄기관 측 의견 수렴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파키스탄 사무소 방문
2025.02.27.	• 파키스탄 통신청(PTA) 면담 - 파키스탄 5G 도입계획 및 ICT 서비스 부문 정책규제 현황 청취 • 파키스탄 정보통신기술부(MoITT) 2차 회의 - 프로젝트 운영계획 논의

〈표 2-11〉 파키스탄 참여연구진

파키스탄 연구진 구성	
시행기관 담당자	외부 민간 전문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국제협력연구실 임동민 부연구위원, 유성훈 부연구위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이삼열 교수 서울대학교: 이종화 박사 법무법인 광장: 조대근 전문위원

- 정책적 타당성: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파키스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브로드밴드의 적절한 공급은 필수적이므로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함. 브로드밴드의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도 필요함. 적절한 교육과 디지털 기술의 사업 적용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필요
- 기술적 타당성: 5G 네트워크 구축 및 상용화를 위해 광케이블 구축에 매진 하려는 파키스탄 정부의 전략 그리고 이러한 전략에 걸맞는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유인구조 마련,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방안 모색, 해외의 성공 사례 벤치마킹 추진은 본 사업에 적합한 의제로 사료됨. 5G 주파수 정책은 전문 자문기관을 지정하고 활용하고, 광케이블 구축을 위한 자원 마련은 세계은행과 협업하고 있는바, 광케이블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Action Plan, 정부의 지원 방안, 민간과의 협력 방안 마련, 한국의 광케이블 구축 관련 정책 경험 공유 등을 요청하는 본 사업과 중복성도 없다는 점에서 추진의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타당성: 본 사업은 기존 마이크로웨이브 기반 백홀망을 광케이블로 전환하고, 국내 로밍 등 통신 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기지국 구축 비용 절감 등 통신망 구축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또한 농어촌 및 산간지역의 학교, 보건소, 공공기관에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제공하여 디지털 포용을 확대하고, 여성 교육과 인력 양성 등 디지털 파키스탄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을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 [공동] 페루
 - '26년 무상원조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에 대해 공동 수요가 있는 페루는 과기정통부 시행기관 간 합동으로 통합 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지 사전타당성 조사 수행

- KISDI가 담당하는 페루 PCP 사업 수요 주제는 ‘지역 과학, 기술 및 혁신 컨소시엄의 조정 및 관리를 위한 역량 및 디지털 서비스 강화’로 페루 과학 기술혁신위원회(CONCYTEC)와 협업하여, RAPA는 ‘AI 디지털 전파관리 역량강화’를 수요 주제로 페루 교통통신부(MTC) 와 협력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표 2-12〉 페루 일정

세부 일시	주요 내용	비고
2025.02.03.	• 페루 수원기관(CONCYTEC, 과학기술혁신위원회) 1차 회의 - 2026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컨소시엄(CRCTI) 사업 자문수요 파악	KISDI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페루 사무소 1차 회의 - 페루 디지털 ODA 동향 파악 및 ICT ODA 전략 제언 청취, 협력 사업 논의 •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방문	KISDI, RAPA
2025.02.04.	• 페루 자문수요 유관기관(ProInnovate, 혁신청) 면담 - 혁신지방생태계 활성화 사업 및 지방발전 생태계 구축 배경 소개 - 컨소시엄 구성 방식 및 인센티브, CRCTI, DER, ARD 협력구조 논의 • 페루 자문수요 유관기관(PCM, 총리실) 면담 - 지방발전원(ARD)의 역할 및 밸류체인 분석, 중복지원방지 방안 논의	KISDI, RAPA
2025.02.05.	• 페루 수원기관(MTC, 교통통신부) 전파감독제재총국(DGFSC) 면담	RAPA
2025.02.06.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페루 사무소 2차 회의 - 전파관리 ODA 타당성 검토, KOICA 공모 사업 정보 청취 • 페루 MTC 전파감독제재총국(DGFSC) 중앙전파관리센터(CER) 기술국장 면담	RAPA
	• 페루 과학기술혁신위원회(CONCYTEC) 2차 회의 - 사전타당성 조사 배경 및 향후 협력 논의	KISDI
	• 페루 MTC 방문 통신부 차관 면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리마무역관 방문	KISDI, RAPA
2025.02.07.	• 페루 수원총괄기관(APCI, 외교부 국제협력청) 회의 - 페루 ODA 현황 및 우선순위 논의	KISDI, RAPA

〈표 2-13〉 페루 참여연구진

페루 연구진 구성	
시행기관 담당자	외부 민간전문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국제협력연구실 김지원 부연구위원, 송영민 전문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방송미디어진흥본부 서창호 본부장, 해외진출지원팀 이영준 주임	국민대학교: 경영학전공 박재신 교수 국립한밭대학교: 서준석 지역협력센터 센터장/산학융합학부 교수 혁신클러스터학회: 임덕순 고문 한국화학연구원(KRICT): 글로벌협력센터 고영주 책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파환경감시연구실 김강희 책임연구원

◦ 분야별 타당성 검토

- KISDI

- (정책적 측면) 본 사업은 페루 정부의 국가 발전 전략(Vision del Peru al 2050) 및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법(SINACTI)과 부합함. 페루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으로 추진 가치가 큼. 한국의 ICT ODA 추진 전략 및 페루 국가협력전략(CPS)의 중점 협력 분야(공공행정 및 ICT)와도 정합성이 높아, 협력국 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술적 측면) 페루는 연구 성과 관리 및 연구소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연구 협업 플랫폼이 부재하며, 연구 데이터 공유 및 분석 역량이 미흡한 상황임. 본 사업을 통해 ICT 기반 연구 성과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연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음. 한국의 STI 디지털 연구 관리 경험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연구 협업 및 성과 확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측면) 본 사업은 디지털 기반의 연구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페루의 낮은 R&D 투자 효율성과 부족한 연구역량을 보완하고, 산업 연계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한국-페루 간 STI(과학기술혁신) 협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수도 리마 중심의 연구개발 구조를 개선하여 지방 연구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 협업을 통해 지역 간 디지털 격차 완화, STI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화(SDGs 9), 글로벌 파트너십(SDGs 17) 이행 등 사회적 효과도 기대됨. 또한, 페루 정부의 스마트시티 및 환경·기후 대응 전략과의 연계 가능성도 높음

- RAPA

- (정책적 측면) 20224.08.14. 라울 페레스 레예스(Raul Perez Reyes) 교통통신부 장관은 '25년 상반기까지 4대 주요 이동통신사에(Entel, Bitel, Claro, Movistar) 5G 전용 주파수를 할당할 예정임을 발표함. 5G 도입을 위한 정책 컨설팅, 3GHz 이상 대역의 전파 감시 및 상시 모니터링, 허가 주파수 DB에 대한 AI 기반 자동 연동 기능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 (기술적 측면) MTC는 재할당되는 주파수 및 5G용 주파수에 대한 가치 측정에 대한 정책 자문 수요와 AI 기반 통합 전파관리시스템 및 관련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음. 주파수 가치의 산정은 주파수 경매 등 할당에 있어 필요한 최초경쟁가격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며 또한 적절한 가치를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전문 엔지니어들의 전파 관리 및 감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가용 장비 활용도가 매우 충실한 편이어서 신형 장비 제공에 대한 기술적 준비가 완비됨
- (사회·경제적 측면) 본 사업은 5G 주파수 경매를 위한 대가 산정 기반 마련과 전파 감시·제재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 편익 향상과 산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3GHz 이상 중대역 활용 확대는 신규 ICT 산업의 활성화와 간접적인 정부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페루 이동통신시장 내 경쟁 촉진 및 디지털 격차 해소정책과 연계되어 전파관리 주무부처인 MTC의 역량 강화는 포괄적 디지털 포용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제 4 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ODA 사업 자체평가²³⁾

1. 평가대상 사업: ICT 기술정책협력 및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 과기정통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에 따라 개최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ICT 기술정책협력 사업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사업이 2025년도 자체평가 대상 사업으로 확정됨
-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용역을 통하여 평가가 진행되어 RISTI 미래전략연구소가 평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평가를 수행

2. ICT 기술정책협력(2024) 사업 종료평가

2.1. 개요

- 평가대상 국가별 사업 목적
 - (ICT 기술정책협력 가나 지원 사업) 해당 사업은 가나 5G 이동통신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 한국과 가나의 통신사업 민관협력 기회를 마련하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함임
 - (ICT 기술정책협력 라오스 지원 사업) 해당 사업은 라오스 디지털 경제 측정 지표 개발을 지원하고 한국 친화적인 정책 환경 조성 및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 (ICT 기술정책협력 페루 지원 사업) 해당 사업은 무선광대역(5G 사설망) 활용 전략 수립으로 페루 통신산업 진흥 전략을 제시하고 현지 ICT 네트워크 현황, 주요 ICT 정책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23) 해당 파트는 RISTI가 수행한 ICT 기술정책협력 사업(KISDI) 및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사업(NIA)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 평가대상 국가별 사업 기간 및 예산
 - (가나) 2024년 3월 ~ 2024년 12월, 325백만 원
 - (라오스) 2024년 4월 ~ 2024년 12월, 268백만 원
 - (페루) 2024년 3월 ~ 2024년 12월, 375백만 원
- 사업 추진체계
 - (총괄·조정 체계) KISDI가 사업을 총괄하고, 과기정통부-KISDI-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세부 운영계획 수립과 조정을 담당함
 - (추진 절차) ①정책 총괄·운영계획 수립 → ②협약 체결 → ③국가별 과제 수행 → ④협의회 기반 모니터링 → ⑤성과 보고 → ⑥사후관리(정책반영 추적·환류) 순으로 진행됨
 - (수행 주체·조직) KISDI 연구진 중심으로 학계·유관기관·민간 전문가를 섭외해 국가별 ‘기술정책협력단(7인~10인)’을 구성하고, 필요시 외부 기관과 수시 연구 협력 체계를 운영함
 - (수행 모델 유형화) 협력국 여건과 한국의 현안을 고려해 ①다자개발은행(MDB) 참여 모델, ②기관 간 연계③협업 모델, ③성과관리·후속 조치 모델 및 ICT 현안 선제 대응 등으로 유형화하여 맞춤형으로 적용함
 - (연간 추진 일정·활동) 사전 연구·협력단 구성·연구협력회의 → 현지/온라인 컨설팅(워크숍·인터뷰) → 초청자문 및 중간보고회 → 보고서 초안 발표 워크숍 → 최종보고·성과공유 워크숍으로 이어지는 월별 로드맵을 운영함.
 - (성과 확산·사후관리) 국별 성과 공유 워크숍 및 영문 보고서 발간으로 확산하고, 종료평가·추적조사·사후평가를 통해 환류 체계를 구축함

〈표 2-14〉 사업추진절차

구분	시행 주체	주요 내용
사업 관리 정책 총괄	MIST, KISDI	사업계획 수립 및 방향성 설정
세부 운영 계획 수립	MIST, KISDI	사업 세부 내용별 운영 계획 수립 및 협의
↓		
협약 체결	MIST, KISDI, 기금사업관리기관	수행계획서(예산 포함) 기반 협약 체결
↓		
사업 수행	KISDI	ICT기술정책협력 국별 과제 수행
↓		
모니터링	KISDI	협의회 개최를 통한 사업 관리
↓		
결과보고	MIST, KISDI, 기금사업관리기관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
↓		
사후관리	KISDI	정책 반영 실적 추적조사 및 환류 체계 구축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ICT기금사업 관리지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2.2. 평가방법론

- 본 평가의 목적은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인 「ICT 기술정책협력」 사업의 2024년 단년도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 실행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ICT 기술정책협력 사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 설계(평가방법론, PDM 및 성과지표, 평가 매트릭스 구성), 평가 실시(문헌조사 및 이해관계자 설문·면담), 그리고 평가체계 및 지표 관리 고도화와 사업 효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을 도출

- 아울러 과기정통부의 ODA 사업 효과성을 측정,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방법을 고도화하는 동시 개도국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 후속 사업 기획을 위한 시사점 및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OECD DAC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 원칙과 6대 평가 기준 및 범 분야 이슈,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 및 매뉴얼에 근거하여 평가 실시
- (원칙)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 (기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일관성²⁴⁾
- (범 분야 이슈) 평가 대상의 △환경영향 △성주류화 △취약계층 포용성 등

2.3. 평가 결과²⁵⁾

가. 가나

- (총평) 「가나 5G 이동통신 구축 및 5G 환경에서의 정보보안 정책 자문」 사업은 당초 추진 목적에 맞게 사업 활동과 운영·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등급) 총점 20점 중 14점 이상(16.51점)을 기록, ‘성공적’인 사업²⁶⁾이라 평가함

〈표 2-15〉 「가나 5G 이동통신 구축 및 5G 환경에서의 정보보안 정책」 종료평가 결과 요약

평가 기준	점수	등급
적절성	3.67 / 4	적절
효율성	3.34 / 4	효율적
효과성	4 / 4	매우 효과적
지속가능성 준비도	2 / 4	일부 지속 가능
일관성	3.5 / 4	일관적
종합	16.51 / 20	성공적

24) OECD DAC는 1991년에 각 5개의 평가 원칙과 기준을 설정한 이후 2019년 12월에 ‘일관성’ 항목을 추가, 평가 기준을 총 6개로 확대하였으며, 우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1년 개정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과 2023년 개정한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에 이를 반영함

25) 자세한 평가결과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참조

26) 18점 이상 ‘매우 성공적,’ 14점 이상 ‘성공적,’ 10점 이상 ‘부분 성공적,’ 10점 미만 ‘미흡’

나. 라오스

- (총평) 「라오스 디지털경제 발전 지표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업은 당초 추진 목적에 맞게 사업 활동과 운영·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등급) 총점 20점 중 14점 이상(14.84점)을 기록, ‘성공적’인 사업이라 평가함

〈표 2-16〉 「라오스 디지털경제 발전 지표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적용」 종료평가 결과 요약

평가 기준	점수	등급
적절성	3 / 4	적절
효율성	3.34 / 4	효율적
효과성	3 / 4	효과적
지속가능성 준비도	2 / 4	일부 지속 가능
일관성	3.5 / 4	일관적
종합	14.84 / 20	부분 성공적

다. 페루

- (총평) 「페루 산업진흥을 위한 무선광대역 활용 전략 수립 지원」 사업은 당초 추진 목적에 맞게 사업 활동과 운영·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등급) 총점 20점 중 14점 이상(16.84점)을 기록, ‘성공적’인 사업이라 평가함

〈표 2-17〉 「페루 산업진흥을 위한 무선광대역 활용 전략 수립 지원」 종료평가 결과 요약

평가 기준	점수	등급
적절성	3 / 4	적절
효율성	3.34 / 4	효율적
효과성	3.5 / 4	효과적
지속가능성 준비도	2.5 / 4	일부 지속 가능
일관성	3.5 / 4	일관적
종합	16.84 / 20	성공적

3.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2024) 사업 종료평가

3.1. 개요

- 평가대상
 - (대상국) 신규 구축 사업 3개국(나이지리아, 부탄, 알바니아)과 고도화 사업 3개국(세르비아, 콜롬비아, 파나마)
 - (주요 내용) 정보접근 인프라와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교육 컨설팅을 지원 하여 국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개도국의 열악한 ICT 교육 환경 개선 사업
 - 디지털교육실, 디지털라운지, 디지털회의실(영상회의) 등으로 구성된 정보 접근센터(Information Access Center, IAC)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추진 경과
 - '02~'24년까지 총 52개국 72개 정보접근센터 구축 완료
 - 25년 현재, 45개국 60개 센터 운영 중
 - 디지털교육실, 디지털라운지, 디지털회의실(영상회의) 시설을 갖춘 정보접근 센터구축 및 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 수원국 정부는 설치장소, 운영비 등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식
 - 45개국 58개 센터에서 총 522,386명이 IAC를 이용, AI 등 1,113개의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356명의 취업 및 111명의 창업 지원 ('24.12월 기준)

〈표 2-18〉 2024년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사업 (종료사업)

구분	국가명	지역	운영기관	기관유형
신규 구축	나이지리아	아부자(수도)	디지털정보격차해소청(DBI)	공공기관
	부탄	팀푸(수도)	팀푸테크파크(TTPL)	공공기관
	알바니아	티라나(수도)	국가정보사회원(NAIS)	공공기관

구분	국가명	지역	운영기관	기관유형
고도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수도)	행정자치부(MPASG)	부처
	콜롬비아	부카라망가	문화관광청(MICT)	공공기관
	파나마	파나마시티(수도)	정부혁신청(AIG)	공공기관

3.2. 평가방법론

- 본 평가의 목적은 2024년 과학기술정통부 소관 ODA 단년도 과제의 추진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및 후속사업 기획에 환류할 개선방안과 교훈을 도출하는 것임
- 평가 수행 범위
 -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기반 마련) 센터별 운영 실적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성과 도출. 센터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고도화 지원 및 사후관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향 제시함
 - (성과지표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기존 만족도 중심 성과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의 목적과 운영을 반영할 증장기 성과 중심 지표군 제안 및 표준 성과지표 틀과 국가별 맞춤형 보완 지표를 도출하여 평가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함.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2개국의 우수사례를 식별함
 - (고도화 기준 제안 및 지역 거점화 가능성 사전 진단) 고도화 사업이 진행된 세르비아, 콜롬비아, 파나마를 대상으로 해당 센터가 고도화에 적합했는지를 검토하고 고도화 기준(안)을 제안. 거점 센터로서의 확장가능성 진단 및 거점화 가능성 평가 기준(안)을 제시함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는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이 제시하는 윤리기준과 행동 준칙에 따르며, OECD DAC EvalNet(개발평가네트워크,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 원칙(principles)과 기준(criteria)을 준용하고 범 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s)를 고려함

- (원칙)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 (기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일관성
- (범 분야 이슈) 평가 대상의 △환경영향 △성주류화 △취약계층 포용성 등
- (사업 등급 부여 기준) 평가 등급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영향력, 지속가능성, 일관성의 5가지 기준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에 따라 본 평가에서도 평가대상 사업의 등급을 산정
-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ToC)
 - (평가 방법) ToC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의도한 결과에 도달하는지를 단계별 인과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도구로, 성과 중심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분석틀임. 최근 OECD DAC, 세계은행, UNDP 등을 중심으로 평가·모니터링 전 과정에서 ToC 기반 분석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ToC 기반으로 사업의 작동·비작동 요인을 식별하는 평가가 확산되는 추세임
 - (평가 적용 방식) 본 평가에서는 정보접근센터 사업의 구조를 분석하여 신규 구축과 고도화, 두 가지 변화경로로 ToC를 제시하였음. 이를 통해 사업의 투입-활동-산출-성과-영향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각 단계에서 나타난 작동·비작동) 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였음
 - (의의) 본 사업은 국가별로 로 센터 유형(신규구축/고도화), 운영목적, 수혜자 구성, 운영체계가 크게 상이하며 특히 공식 PDM(LogFrame)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본 평가에서는 ToC 분석을 통해 성과 달성 경로를 구조화하고, 향후 NIA의 성과관리 프레임 개선, 보완지표 개발, 고도화·거점화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3.3. 평가 결과²⁷⁾

가. 종합

- (총평) 「개도국정보접근센터 구축」 사업은 수원국의 디지털 정책 및 첨단 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ICT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역량 강화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함
- (등급) 총점 20점 중 14점 이상(17.17점)을 기록, ‘성공적’인 사업²⁸⁾으로 평가함

나. 국가별 평가 결과

1) 나이지리아, 디지털정보격차해소청(DBI)

〈표 2-19〉 나이지리아 정보접근센터 평가 결과 요약

평가 기준	점수	등급
적절성	4 / 4	매우 적절
효율성	3.5 / 4	매우 효율적
효과성	3.5 / 4	매우 효과적
지속가능성 준비도	3.5 / 4	지속가능
일관성	4 / 4	매우 일관적
종합	18.5 / 20	매우 성공적

2) 부탄, 팀푸테크파크(TTPL)

〈표 2-20〉 부탄 정보접근센터 평가 결과 요약

평가 기준	점수	등급
적절성	4 / 4	매우 적절
효율성	3.5 / 4	매우 효율적
효과성	3 / 4	매우 효과적
지속가능성 준비도	3 / 4	지속가능
일관성	4 / 4	매우 일관적
종합	17.5 / 20	성공적

27) 자세한 평가결과는 국문조정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참조

28) 18점 이상 ‘매우 성공적,’ 14점 이상 ‘성공적,’ 10점 이상 ‘부분 성공적,’ 10점 미만 ‘미흡’

3) 알바니아, 국가정보사회원(NAIS)

〈표 2-21〉 알바니아 정보접근센터 평가 결과 요약

평가 기준	점수	등급
적절성	4 / 4	매우 적절
효율성	4 / 4	매우 효율적
효과성	3 / 4	매우 효과적
지속가능성 준비도	3.5 / 4	지속가능
일관성	3.5 / 4	매우 일관적
종합	18 / 20	매우 성공적

4) 세르비아, 행정자치부(MPASG)

〈표 2-22〉 세르비아 정보접근센터 평가 결과 요약

평가 기준	점수	등급
적절성	4 / 4	매우 적절
효율성	3.5 / 4	매우 효율적
효과성	4 / 4	매우 효과적
지속가능성 준비도	4 / 4	매우 지속가능
일관성	4 / 4	매우 일관적
종합	19.5 / 20	매우 성공적

5) 콜롬비아, 문화관광청(MICT)

〈표 2-23〉 콜롬비아 정보접근센터 평가 결과 요약

평가 기준	점수	등급
적절성	4 / 4	매우 적절
효율성	3.5 / 4	매우 효율적
효과성	4 / 4	매우 효과적
지속가능성 준비도	4 / 4	매우 지속가능
일관성	4 / 4	매우 일관적
종합	19.5 / 20	매우 성공적

6) 파나마, 정부혁신청(AIG)

〈표 2-24〉 파나마 정보접근센터 평가 결과 요약

평가 기준	점수	등급
적절성	2.5 / 4	일부 적절
효율성	3.5 / 4	매우 효율적
효과성	3 / 4	매우 효과적
지속가능성 준비도	4 / 4	매우 지속가능
일관성	2.5 / 4	일부 미흡
종합	15.5 / 20	성공적

제 5 절 2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DA 워크숍

1. 2025 과학기술·디지털 국제개발협력 포럼

1.1. 개요

- 일 시: 2025. 11. 26.(수) 10:00~12:00
- 장 소: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
- 개최 목적
 - 포용적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디지털 ODA 논의를 통해 차기 과기정통부 글로벌 협력과 AI, 한국 과학기술 디지털 ODA 방향성 모색

1.2. 세부 프로그램

〈표 2-25〉 2025 과학기술·디지털 국제개발협력 포럼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09:30~10:00	리셉션 (참가자 등록 및 안내)
진행: 유은진 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00~10:05	개회 및 인사말 (황성훈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5~11:05 (발표 세션)	과학기술혁신 분야 ODA 동향 및 시사점 (김지현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디지털 분야 ODA 동향 및 시사점 (유성훈 부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05~11:20	장내 정리 및 휴식
11:20~11:50 (패널 세션)	[주제: 글로벌 협력과 AI, 한국 과학기술·디지털 ODA 방향성] - 좌장. 박재성 회장, 국제개발협력학회 - 패널. 오동길 팀장, KOICA - 패널. 박재신 교수, 국민대학교 - 패널. 서중해 초빙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11:50~12:00	-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 폐회

1.3. 주요 내용

가. 발표 내용

- ① 과학기술·혁신 분야 ODA 동향 및 시사점 (김지현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글로벌 환경은 미·중 패권 경쟁 심화, 국제 ODA 예산 조정, DAC 체계 변화, 브릭스 확대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 과학기술 ODA의 전략적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기술·혁신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함
 - 과학기술 ODA의 개념은 연구개발 중심 지원에서 역량 강화·기술 확산·정책 기반 구축을 포함하는 다층적 구조로 진화해 왔음
 - 국가별 분류체계, 통계 추출 방식 차이를 고려한 표준화된 정책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 등 주요 공여국 사례는 디지털 역량 강화, 연구 생태계 조성, 혁신 기업 지원, 포용적 기술 접근성 확보 등 자국 전략을 반영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의 정책 설계 시 벤치마킹 가능성을 시사함
 - 한국의 과학기술 ODA는 ICT 중심 지원, 연구기관 비중 확대, KOICA·EDCF의 역할 분화 등을 특징으로 함
 - 지역·유형·분야별 공여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전략적 조정과 체계적 투자 배분이 요구됨
 - 한국형 디지털 모델 확산,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기술 기반 위기 대응 역량 제고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며 과학기술 ODA 프레임워크의 고도화와 국가 전략 수준의 정합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함
 - 과학기술 중심의 국제개발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표준 경쟁, 디지털 규범 확립 등 신형 국제질서와도 직접 연계되어 있어 개발협력의 외교·경제적 전략성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함

② 디지털 분야 ODA 동향 및 시사점 (유성훈 부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국제개발협력 환경은 AI 확산,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국제 규범 강화 등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
 - AI는 보건·교육·농업·기후 대응 등 개발도상국 핵심 분야에서 도약형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도구로 부상함
- AI 기술은 기계학습·자연어처리·컴퓨터비전 등으로 구성되며 데이터 품질·컴퓨팅 자원·제도·인력 역량이 필수 요소로 요구되고 개발도상국의 제도·언어·자원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적용이 필요함
-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은 AI 기반 예측·분석·디지털 행정 체계를 확장하고 있음
 - USAID·UNESCO·IDRC·Sida 등은 현지 역량 강화, 윤리·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구 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협력 모델을 발전
- 한국은 AI ODA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기반 재난 예측, ITS, 공공 행정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수행
 - 제도 내재화, 지속 가능 운영, 현지 기술 역량의 격차 해소가 과제로 제기됨
- AI 협력은 정책 정밀성 강화, 자원 효율화, SDGs 달성 촉진 등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 데이터 불균형, 규제 미비, 기술 종속 위험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함
- 향후 ODA는 수원국 참여 기반의 공동설계, 데이터 주권을 존중한 생태계 구축, 윤리·책임·투명성 기반의 AI 거버넌스 확립, 전문 인력 양성, PPP 기반 실행모델 고도화, 포괄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AI 기반 개발협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수원국의 제도·데이터·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며, 공동설계와 현지화가 성과 달성의 핵심 조건으로 강조됨

나. 패널세션: 글로벌 협력과 AI, 한국 과학기술·디지털 ODA 방향성

◦ 패널. 오동길 팀장 (KOICA)

- 글로벌 AI 논의는 AGI 등장 가능성, 기술윤리, 데이터 주권, 표준정립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AI는 보건·농업·기후·교육 등 전 분야에서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재편하는 핵심 도구로 부상함
- KOICA의 디지털 ODA 전략은 디지털 주류화와 디지털 핵심사업의 이중 축으로 구성되며 AI는 예산·수요 제약 등으로 독립 사업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는 형태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
- KOICA는 2024년부터 AI 적용 지침 반영, 신규 PCP 검토, 전문가 풀 구성 등 내부 준비를 진행해 왔음
- 2025~2027년 양자·공모형 사업에서 AI 기반 법률서비스, 인재 양성, 데이터 가공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발굴 중
- 향후 AI ODA 확대를 위해 국가별 AI 준비도 평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분야별 모듈형 사업 설계, 인력·생태계 조성, 실행·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단계별 전략 정립이 요구되며 국내 AI 산업과의 연계 강화도 중요함

◦ 패널. 박재신 교수 (국민대학교)

- AI는 과학기술·디지털 ODA의 촉진자와 가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디지털 정부·교육·보건·데이터 기반 행정 등 기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
- 기술·데이터 제약으로 불가능했던 협력 영역을 확장시키는 핵심 기술로 부상함
- 디지털 주류화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정부 및 KOICA 전략 속에서 AI는 교육·보건·거버넌스·평화 분야의 실행력을 높임
- 저자원 환경에서도 디지털 교육·다언어 서비스·합성데이터 기반 분석 등 새로운 ODA 영역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
- AI 도입은 기술 문제가 아닌 데이터 품질, 윤리, 현지 역량, 제도 환경이 결합된 복합적 이슈로서 블랙박스, 판단 능력 약화, 현장과 유리된 가이드라인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 가능성, 인간 보조 중심 설계, 현지 데이터 기반 RAG-LLM 구축이 요구됨

- 책임성 있는 AI ODA를 위해서는 윤리 원칙 준수, 현지 역량 강화, 비판적 검증 절차 내재화 등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갖춘 책임성 있는 추진체계 확립이 필수임
- 발표자. 서중해 초빙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 AI는 보건·농업·재난 대응·교육 등 개발협력 핵심 분야에서 조기 진단, 작황 예측, 재해 매핑, 맞춤형 학습 등 기존 방식으로는 어려웠던 해결책을 제공하며 SDGs 달성에 기여하는 강력한 촉진 요인으로 평가됨
 - 반면 글로벌 노스 중심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식민주의, 디지털 인프라 격차, 저숙련 일자리 감소, 취약계층 데이터 오남용 우려 등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야기할 위험 요인이 동시에 존재함
 - 현지 인력이 AI를 직접 개발·운영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저자원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경량화 AI 등 적정기술 개발, 개도국 언어·지리·문화 기반의 포용적 데이터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됨
 - AI를 글로벌 공공재로 인식하고 국제 협력과 공여국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한국은 중간자 역할을 통해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를 연결하는 균형적·조정자적 리더십을 수행할 필요성이 강조됨

2. 2025 과학기술·디지털 ODA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2.1. 개요

- 일 시: 2025. 11. 26.(수) 14:00~17:30
- 장 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 지하 1층 대회의실
- 개최 목적
 -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ODA 사업 성과 및 추진계획 공유와 사업 평가 및 발전 방안 논의

2.2. 세부 프로그램

〈표 2-26〉 2025 과학기술·디지털 ODA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14:00~14:30	• 등록
진행: 유성훈 부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30~14:3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인사말 (이미정 사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상식 (2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DA 포상)
14:40~16:10 (발표 세션)	[주제: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DA 사업 성과 및 추진 계획] • 2025 과기정통부 ODA 사업 자체평가 주요 내용 (유은진 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ICT 기술정책협력 (김지원 부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보통신방송 전문가 초청연수 (홍순상 수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개발은행 협력 지원 (전승옥 주임, 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ICT 정책 결정자 협력채널 (강예진 수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K-LAB 설치 및 운영 (이경환 수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방송환경 개선 지원 (임석진 팀장, 한국전파진흥협회) • 정보접근센터 구축 (지운중 수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 (김형주 부연구위원, 한국연구재단)
16:10~16:30	• 휴식 (커피 & 티 브레이크)
16:30~17:10 (패널 세션)	[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DA 사업 평가 및 발전 방안] • 패널. 김성규 교수, 고려대학교 • 패널. 권호 수석, 국제개발컨설팅 • 패널. 고영주 책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패널. 이창섭 대표, GSI컨설팅
17:10~17:30	•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2.3. 주요 내용

가. 시상식

- 2025 과기정통부 ODA 포상
 - (수상자) NIPA 이경환 수석, NIA 강예진 수석, KISDI 유성훈 부연구위원

나. 발표 내용

- ① 2025 과기정통부 ODA 사업 자체평가 (KISDI 유은진 연구위원)
 - 2025 과기정통부 ICT ODA 자체평가 개요
 - (배경)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8조,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등에 따라 매년 평가를 시행
 - ODA 사업 성과의 투명성 제고,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 효과성 개선, 시행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평가 시행
 - (목적)
 - 2025년도 자체평가 대상 사업 종료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 점검, 교훈·개선 방안, 사후관리 방향 도출
 - 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도모
 - 자체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 '24년 종료 프로젝트 전체 평가 수행(지침 개정 반영)
 - 직전년도 평가·최근 3년 내 유사 평가 사업 제외
 - 연수사업 등 기타 유형 제외
 - 평가 실익이 없는 소액·단순 집행 사업 제외
 - (평가대상) 과제 4건 / 15개 사업
 - 지식재산활용과학기술지원 (몽골/베트남/인도네시아, 3,220백만원, 2021~2024)
 - ICT 기술정책협력 (가나/라오스/페루, 968백만원, 2024)

-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파라과이/탄자니아, 4,500백만원, 2022~2024)
-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나이지리아/부탄/세르비아/알바니아/콜롬비아/파나마, 3,496백만원, 2024)
- (평가대상 및 목적) 2024년 단년도 사업 중심 종료평가
 - 「ICT 기술정책협력」,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사업성과 점검 및 교훈·개선 방안·사후관리 방향 도출

〈표 2-27〉 2025 과기정통부 ODA 사업 자체평가 대상

사업명	협력국		자문 주제	
ICT 기술정책협력	가나		5G 이동통신 구축 및 5G 환경에서의 정보보안 정책	
	라오스		디지털경제 발전 지표 개발	
	페루		산업진흥을 위한 무선 광대역 활용 전략	
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운영	구분	국가명	지역	운영기관
	신규 구축	나이지리아	아부자(수도)	디지털정보격차해소청(DBI)
		부탄	팀푸(수도)	팀푸테크파크(TTPL)
		알바니아	티라나(수도)	국가정보사회원(NAIS)
	고도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수도)	행정자치부(MPASG)
		콜롬비아	부카라망가	문화관광청(MICT)
		파나마	파나마시티(수도)	정부혁신청(AIG)

- 평가 방법
 - 외부 평가 기관 선정·평가 실시
 - OECD DAC 6대 평가 기준* 기반 평가
 - * 적절성(Relevance),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일관성(Coherence)
 - 적절성·일관성·효율성·효과성 중심 중·단기성과 점검
 - 영향력·지속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평가하되 장기성과 유지 방안 모색

- 평가 매트릭스 구성

- ICT 기술정책협력·정보접근센터 사업별 적절성·효율성·효과성·일관성 등 평가 항목에 따른 점검

- (향후 자체평가 주안점)

- 평가 대상 및 범위의 전략적 선정
 - 종료평가 중심이되 평가 실익 고려하여 대상 선별
 - 단순 성과 확인이 아닌 학습·환류 중심 평가 추진
- 사업 기획 단계의 성과관리 체계 강화
 - 변화이론(ToC), PDM(Logframe), 핵심성과지표(KPI) 사전 설정
 - 질의 데이터 추적 및 활용 기반 확보
- ICT ODA 공통 성과지표 설정
 - ODA 통합 성과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ICT ODA 공통 지표 개발 및 적용
(예: 디지털 역량, 제도 개선 성과, 데이터 인프라 개선 등)
- AI·데이터 기반 ODA 확대 기초 반영
 - AI 특화 KPI, 데이터 활용 성과지표 신규 도입
- 후속·연계 사업 기획 반영
 - 자체평가를 후속·연계 사업 발굴 기회로 활용

② ICT 기술정책협력 (KISDI 김지원 부연구위원)

- 사업 개요

- (사업 배경)
 - 대외적 목적: 한국의 ICT 주도형 경제개발 모델을 개도국이 벤치마킹, 원조 공여국으로서 역할과 책임 수행
 - 대내적 목적: 국내 민간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진출 기반 조성, KISDI의 축적된 정책 경험 공유

- (사업 목적) 기술정책협력단 운영을 통한 수원국 ICT 정책 및 발전 전략 수립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기획: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대상국 및 자문 분야 선정, 협약 체결
 - 사업 시행: 기술정책협력단 운영·자문 실시(현지/초청), 정책 자문 보고서 작성
 - 사업 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
- (사업 경과)
 - 2001년 ASEAN+3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동아시아 정보격차 해소 사업 시작
 - DICT, WB, ADB 등 국제기구 및 양자 원조 간 협력 확대
 - 29개국 102건의 자문 사업 수행 (2025년 기준)
- 2025년 주요 성과
 - (라오스 기술통신부) 디지털경제 법·제도 검토 및 실질적 정책 구조(규제, 인센티브) 개발 지원
 - 라오스의 디지털경제 전환·제도 정비 수요 반영
 - 법·제도 정비와 맞물린 정책 구조 개편 자문
 - 민간 디지털경제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설계 지원
 - 5년 협력 프로그램의 정책 자문 실시 예정
 - (에티오피아 혁신기술부) 디지털경제 구현을 위한 ICT 표준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지원 (2025~2026)
 - 국제 표준 및 국내 표준 운영 기반으로 디지털경제 법제도 재구축 자문
 - ACFTA 연계 디지털 통합·표준체계 구축 지원
 - 데이터 관리·보호 및 전자정부·디지털 서비스 기반 마련
 - 다자개발은행(MDB) 연계 협력 기반 구축

- (페루 과기혁신위) 과학기술단지 정책 이행 및 관리 역량 강화 (2024~2025)
 -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과학기술단지 정책 정합성 강화
 - 과학기술단지(STP) 선정·운영 기준 정비, 혁신생태계 구축 정책 마련
 - 페루 과학기술혁신위원회(CONCYTEC)와 연계한 후속 프로그램 관리 자문
 - 신규 STP 조성 관련 MOU 체결 지원 및 사업 관리체계 개선
- 2026년 사업 추진계획
 -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ICT 기술정책 지원 강화
 - (전문성 강화) 정책 자문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이버보안·AI 등 신흥 분야 까지 포괄, 전문가 그룹 규모 확대 및 심층 자문 강화
 - (성과 확산) 수원국의 디지털 생태계 심층 분석, 현지 전문가 활용 및 지원 대상 규모 확대, 연계 사업·다자협력 기반의 후속 사업 구조 마련
 - 국가별 사업 추진계획
 - (에티오피아 혁신기술부) 디지털경제 구현을 위한 ICT 표준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2차 년도)
 - (파키스탄 정보통신기술부) 디지털 파키스탄 정책 가속화: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현 전략 및 계획 수립 지원
- 사업 추진 방향
 - 가시성 제고 및 프로젝트형 사업과 연계
 - 협력국 현지 파일럿 프로그램을 기본 모듈로 확대
 - 과기정통부 ODA 시행기관, EDCF, KOICA 등 타 ODA 수행 주체의 프로젝트형 사업과 연계 강화
 - 정책 자문의 범위 확대
 - AI 규제, 데이터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기술 규범 및 정책을 주제로 하는 정책 자문으로 범위 확대

- 협력국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인재 양성 정책 제언
- 산업·기술 연계형 ODA로 확장
 - 디지털 인프라-정책-산업(5G, AI 등) 연계를 강화
 - 한국 기관 및 기업과 협력국 산학연 관계자 간 파트너십 구축 지원
- 맞춤형 정책 자문의 정교화
 - 국가별 디지털 발전단계에 따른 단계별 정책 설계(Tiered Consulting Mode) 적용
 - 협력국 정부의 역량을 고려한 자문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초청자문) 고도화

③ 정보통신방송 전문가 초청연수 (NIPA 홍순상 수석)

- (사업 개요) 개도국 ICT 분야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초청연수 운영
- (연수 목적) 개도국 ICT 전문인력 역량강화, 국가 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 등
- (연수 대상)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전문인력(공무원, 공기업 관계자 중심)
- (연수 내용) 전문가 강의(온·오프라인), 현장 견학(기관 및 기업), 발표 및 토론, 한국 문화체험 등
- (연수 기간) 10일 (단기 연수)
- (연수 규모) ICT 분야별 연 8개 과정 운영, 150명 대상 교육(과정당 20명 내외)
- (연수 주제) 다국가(AI 융합 활용, 기술사업화 등), 수원국 맞춤형(네팔)
- (지원 사항) 항공권, 숙박, 식사, 체제비, 교육비 등 연수 과정을 위한 필요 사항 전액
- 2025년 추진성과
 - 오프라인 초청 연수(일반과정 5개 및 맞춤형 과정 3개)를 통해 36개국 150명 연수생 배출
 - 1차: 한아세안-AI디지털혁신과정 (8개국 16명)

- 2차: 네팔-ICT미래혁신과정 (네팔 15명)
- 3차: AI기술정책과정 (13개국 21명)
- 4차: AI융합활용과정 (11개국 21명)
- 5차: 사이버보안전문과정 (13개국 21명)
- 6차: K-LAB-AI헬스케어과정 (6개국 15명)
- 7차: 공공디지털전환과정 (12개국 19명)
- 8차: 기술사업화과정 (14개국 22명)
- (ODA 사업연계) NIPA K-LAB 사업 연계 등 맞춤형 연수 운영으로 효과 제고
- (온오프라인 융합) 온라인 초청연수 과정을 오프라인 과정과 연계 운영
- '24년 우즈벡 지원 과정 이후 후속 성과 공유 세미나 개최('25.8.13)
 - 한국의 경제 성장과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전략 방향임을 설명
 - AI가 저비용·고효율 전략을 통해 신흥국의 사회 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촉진 가능
 - 우즈베키스탄 공항의 AI 기반 보안 솔루션 도입 검토
 - 중앙전파관리소 협력 등 한-우즈벡 ICT 협력 모델의 모범 사례
 - 내달 나이지리아 예정
- ('98~'25) 1998년 초청연수 실시 이후 155개국 6,221명 연수 수료 (연평균 230명 이상)
- 2026년 추진계획
 - 오프라인 연수 과정 기획 및 운영(안): 연간 40명 목표
 - 1분기: AI 중심 초청연수 과정 기획
 - 2분기: 개도국 ICT 전문가 연수생 선발

- 3분기: 오프라인 AI 기술/정책 협력 과정 운영(1차)
- 4분기: 오프라인 AI 융합/활용 성장 과정 운영(2차)
- (연수 대상 다변화) 개도국 청년층, ICT 기업가, 공공부문 종사자 등으로 확대
- (오프라인 과정 운영 방향) AI 기술/정책/융합/활용 관점에서 상호 성장 가능한 방향으로 기획·운영
- (현지 세미나) 개도국 연수생과의 지속적인 관계 강화 및 성과 공유 세미나 개최(1회 예정)

④ 개발은행 협력 지원 (KISA 전승옥 주임연구원)

- KISA 개발은행 협력지원 사업 개요
 -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CABI(중미통합경제은행), AfDB(아프리카 개발은행) 등 개발은행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개도국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지원
 - 개발은행의 사이버보안·디지털전환 수요에 대응한 기술협력 프로그램 수행
 -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기술 우수사례 공유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장 기반 마련
- GCCD(Global Cybersecurity Center for Development, 글로벌 정보보호 센터) 소개
 - (목표)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한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개도국 사이버 범죄 대응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 운영
 - (성과) GCCD 기반의 사이버보안 기술실습 프로그램 운영, 개도국 대상 사이버 보안 인력양성 및 협력 생태계 강화
 - (활동) 사이버보안 기술실습 프로그램(사전 교육, CTF 수행, 기술 실습), 국가별 기술실습 수행(탄자니아·도미니카공화국·코스타리카)

- (산출물) 사전-사후 평가 결과: 평균 40~55점 향상, 국가별 교육 수료생 총 81명 배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및 글로벌 협력 확대 기반 마련
- (사업 현황) 2025년 GCCD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기술실습
 - 3개국(탄자니아,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기술실습 수행
 - (탄자니아) 금융 및 통신, ICT 등 20개 기관 담당자 총 33명 교육 수료, 사전-사후 평가(CTF) 점수 40점 향상, 교육 만족도 4.5점
 - (도미니카공화국) 경찰청·검찰청·수사국 등 9개 기관 담당자 21명 교육 수료, 사전-사후 평가 점수 55점 향상, 교육 만족도 4.96점
 - (코스타리카) 과학기술통신부·국가안보국·사법조사국 등 3개 기관 및 1개 기업 담당자 27명 교육 수료, 사전-사후 평가 점수 51.5점 향상, 교육 만족도 4.8점
- (사업 주요 성과)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및 현지 인력 양성
 - GCCD 기반의 사이버보안 기술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현지 인력양성 성과 확보
 - CTF(Capture The Flag,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실습을 통한 체감형 효과 검증
 - 국가별 수요 기반 사이버보안 기술 역량 제고 및 대응 역량 강화
 - 도미니카공화국, 탄자니아, 코스타리카 등에서 교육 수료생 총 81명 배출
 - 경찰·검찰·국방·과기정통 등 주요 기관의 사이버보안 실무역량 향상
- KISA 글로벌협력 현황 및 향후 계획
 - 정보보호 해외 전략거점(CAMP, GCCD 등) 기반 글로벌 협력 확대
 - (주요 역할) G2G 협력, 프로젝트, 행사·조사
 -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위협 정보공유 체계 강화, 개도국 대상 정책·기술 자문 확대

- 글로벌 보안협력 네트워크(CAMP) 기반 활동
 - (미션/비전) “CAMP lights up a safer tomorrow”
 - 회원국 간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협력 추진

⑤ 해외 ICT 정책 결정자 협력 채널 (NIA 강예진 수석)

- 사업 소개
 - (목적) 개도국 고위급·실무급 ICT 정책결정자 대상 세미나·포럼 운영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전수하여 수원국의 ICT 정책 수립·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ICT 파트너십 강화
 - (추진 경과)
 - (1998) 제21차 APT(아·태 전기통신협의체) 관리이사회 제안에 따라 APT 회원국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사업 시작
 - (2008) 전략 국가 대상 현지 협력 채널 최초 운영(멕시코)
 - (2013) 초청연수 사업에서 수요 기반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해외 IT정책 결정자 협력채널 운영’으로 사업명 변경
 - (2015) 미래부 장관 주재 ‘제1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개최
 - (~2025) 142개국 5,762명 대상 온오프라인 협력프로그램 운영
- 사업 내용
 - (고위급) 개도국 ICT 부처 장·차관 대상 한국의 디지털 전환 우수정책 공유 및 한-개도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개최
 - (실무급) ICT 부처 국·과장급 실무 공무원 대상 초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실행 역량 강화 및 공동협력 과제 발굴

◦ 2025년 사업 추진 성과

- 해외 ICT 실무급 정책결정자 협력채널

- (목적) 개도국 ICT 부처 공무원을 국내 초청하여 수원국과 공동협력과제 기획을 통해 개도국의 디지털 현안 해결 지원, 한-개도국 간 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원국과 지속가능한 협력채널 구축 및 한국의 디지털혁신 글로벌 확산 기반 마련
- (참석) 캄보디아, 라오스, 에티오피아, 부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 (운영 기간) 2025년 9월 3일~9월 12일 (8일)
- (추진 내용) 문제정의 → 솔루션 탐색 → 지식 역량 강화 → 민관협력 방안 탐색 → 사업 기획
- (주요 내용)
 - ▷ 국별 공동 협력과제 기획 워크숍: 국별 문제분석(사전), 국별 문제분석 및 해결 방안, 공동협력 과제 기획 실습
 - ▷ 강의: 주요 디지털전환 정책 및 사업, 한국기업 사례
 - ▷ 현장 방문: 디지털 배움터, 서울 AI 스마트시티센터, LG Science Park
 - ▷ 민관협력 네트워킹: 7개국 19개 기업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 제11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2025.11.12.)

- (목적) 한국형 디지털 혁신의 비전·성과 공유를 통한 개도국 디지털 전환 지원 및 ICT 분야 협력 방안 모색
- (참석) 과기정통부, NIA, 산·학·연 전문가 등 국내 77명, 해외 8개국(네팔·라오스·키르기스스탄·몽골·타지키스탄·부탄·베트남·우즈베키스탄) ICT 부처 고위급, 국제기구, 주한대사 등 국외 26명
- (주제) 디지털·AI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달성과 글로벌 미래 실현

- (주요 프로그램)
 - ▷ 사전 환담: 한-참가국 간 협력 방안 협의 원탁회의
 - ▷ 기조 발표: 한국의 디지털·AI 전환 정책, AI 기반 글로벌 디지털 협력
 - ▷ 패널토론: 디지털·AI 전환 전략 및 국가별 도전 과제
 - ⇒ (Key findings) AI 전략 이행, AI 기반 공공서비스(보건·농업·재난 관리·교육 등), 인재 양성, AI 인프라, 사이버보안 등에서 한국과 협력 희망
 - ▷ 기관 방문: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 및 한국기업 선진 ICT 기술 소개 (일리아스AI, 한양대 게임연구실, 웅진씽크빅, 플리토 참가)
- 2026년 사업 추진계획
 - (고위급) 글로벌 디지털 아젠다 선도를 통한 고위급 ICT 협력 기반 조성
 - 일정: 2026년 하반기(미정)
 - 장소: 서울 소재 컨퍼런스 홀(미정)
 - ODA 중점협력국 및 ICT ODA 사업추진국 장·차관 10개국 이내
 - (실무급) 제11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후속 협력사업 발굴 세미나·워크숍
 - 일정: 2026년 상반기(미정)
 - 방법/장소: 초청 또는 현지(미정)
 - 대상: 고위급 협력채널 참석국가 6개국 이내 국과장급 실무진

⑥ K-LAB 설치 및 운영 (NIPA 이경환 수석)

- 사업 개요
 - (목적) 개도국에 디지털 제작시설(K-Lab)을 구축하고 디지털 제작장비 활용 및 ICT/SW 교육을 통해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 (사업 대상) OECD DAC 목록 기준 개도국
 - (사업 기간) 각 국가별 5년(1년차 인프라 구축 → 2년차 시범 운영 → 3년차 안정화 → 4년차 협력 확대 → 5년차 자립·출구 전략)

- (지원 장비)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기,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3D 랩탑 등 SW·ICT 교육장비
- (주요 활동) 디지털 시제품 제작소 인프라 조성, SW·ICT 교육, 현지 운영 인력 양성 교육, 사업 연계 및 확대를 위한 대외협력
- 2025년 K-Lab 운영 성과
 - AI 중심 K-Lab 사업 구조 고도화 기획
 - AI 분야의 해외 ICT ODA 협력 수요 증대 반영
 - (기존) 디지털 제조 교육 중심 → (변경) AI 중심 ICT 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도화
 - 제조·SW·ICT 교육 확대를 통한 디지털 역량 혁신 지원
 - 국가별 K-Lab 중장기 추진 방향 모색(지속가능성 확보)
 - 현지 협력 기관과 중장기 추진 방향 마련
 - 국가별 ICT 산업·시장 현황 기반 차별화된 K-Lab 미래 전략 설정
 - (볼리비아) 창업 지원 및 확산 게이트웨이
 - (우즈베키스탄) AI 특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 (코스타리카) AI 융합 헬스케어 교류·협력 센터
- 2025년 K-Lab 국가별 운영 성과

1) 라오스

- (주요 활동)
 - K-Lab 라오스 지속가능성 확보
 - 디지털 역량 강화(디지털 제조 및 ICT SW 교육 확대)
 - 전문가 초청 연수
 - K-Lab 성과공유회

- (주요 실적)

- K-Lab 라오스 5년차 운영
- 디지털 제조 및 ICT 미래세대 교육(연중)
- 지속가능성 확보 TF팀 운영
- 경연대회 및 성과공유회 개최
- 초청 연수 운영(라오스국립공대 10명)
- 디지털 제조 교육 수료 664명(수료율 94.88%)
- 디지털 SW 교육 수료 207명(수료율 83.17%)
- 디지털 강사 양성 과정 30명(수료율 99%)
- 정규과정 편입, 비즈니스 모델 구축, 체험전시실 구축, 인턴십 프로그램 등 자립 기반 강화
- 메이커톤·로봇경연대회 개최
- K-Lab 성과공유회 및 사업이양식 개최(12.11-12)

2) 볼리비아

- (주요 활동)

- WIS 전시회 참가
- BDP(볼리비아생산개발은행) 연계 산업체 재직자 교육
- 인공지능 의료 장비 설치
- 대내외 협력 행사 개최

- (주요 실적)

- 디지털 서비스·제조 교육(연중)
- AI 기반 의료 장비(호흡기·엑스레이·치아) 설치 및 의료봉사
- 전시회·경진대회·성과공유회 개최
- 2025 World IT Show 부스 참가

- 디지털 서비스 교육 약 800명
- 디지털 제조 교육 약 600명
- 강사 양성 교육 20명
- 다양한 디지털·제조 분야 교육 실적 확보

3) 우즈베키스탄

- (주요 활동)

- 강사 역량 강화(디지털 제조/SW 역량 강화 교육)
- 디지털 역량 강화(디지털 제조/ICT SW 교육)
- K-Lab 우즈베키스탄 SW 해커톤 개최
- K-Lab 우즈베키스탄 창업경진대회 개최

- (주요 실적)

- ICT SW 교육 895명
- 디지털 제조 교육 905명
- 취·창업 실무 교육 및 멘토링 200명
- 강사양성 교육 6명
- AI SW 아이디어 해커톤 개최(11.15)
- K-Lab 창업경진대회 개최(11.15)
- 창업경진대회 BM/IR 멘토링 14건
- 현지 대학 연계·협력, SNS 홍보 등 네트워크 확대

4) 코스타리카

- (주요 활동)

- K-Lab 코스타리카 개소식 개최
- 초청 연수(의료 인공지능 연수)
- AI 헬스케어 세미나 개최

- Expo Korea 참가
- (주요 실적)
 - 디지털 서비스 및 제조 교육
 - K-Lab 산카를로스/카르타고 개소식 개최(7.29-30)
 - 의료 인공지능 역량 강화 초청 연수(중남미 5개국 15명)
 - AI 헬스케어 세미나 개최(5.14 / 11.3)
 - Expo Korea 참가(의료 AI·3D 프린터 전시)
 - 중남미 학술대회(CONINVE) 초청 강연
 - STEM 행사 및 K-Festival 참여
 - 디지털 서비스 교육 약 800명
 - 제조 교육 약 250명
 - 강사 양성 약 10명
 - 지역별 AI 헬스케어 기반 협력 확대
- 2026년 K-Lab 추진 개선 방향
- 국익에 도움이 되는 ICT ODA
 - 국내·현지 간 협력 활동 강화
 - B2B(ICT 기업 간) 협력프로그램 확대('25년 한-중남미 협력 AI 융합 헬스케어 세미나 사례)
- 현지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프로그램 활성화
 - 현지 파트너 ICT 협력 체계 강화(Role & Responsibility)
 - 협력 네트워크 발굴 및 파트너십 체결
 - ICT 역량 강화 공동 프로그램 기획·발굴·운영
- K-Lab 프로젝트 운영위원회(PIC) 기능 확대로 K-Lab 운영 탄력성·효과성 증대
 - 중장기 발전 방향 논의, 산업·기업 연계 확대 등 거시적 운영 기능 강화

- K-Lab 시장 확대

- 기존 K-Lab 라오스 종료에 따라 신규 지역(아시아·아프리카) 발굴
- 대륙별 교류·협력 Gateway 기능 확대

⑦ 개도국 방송 환경 개선 지원 (RAPA 임석진 팀장)

◦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디지털 기반 방송 인프라 개선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및 빈곤퇴치, 경제 성장, 민족통합 등 개도국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

- (사업 주요 내용)

- (방송 시스템 구축 지원) 협력국 방송환경을 고려한 국산 장비 중심의 방송 시스템 패키지 지원
-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지원 장비를 활용한 기술 및 콘텐츠 제작 관련 노하우 전수를 통한 방송서비스 역량 강화
- 모니터링 및 중장기 교류 협력) 유지보수,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및 중장기 교류 협력으로 원조 효과성 제고

◦ 최근 5개년 사업 현황

- 개도국 방송 시스템 활용 및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 성과 달성

- 최근 5년간 9개국 대상 신규 인프라 지원(12건), 사후관리 지원(3건), 방송 콘텐츠 지원(1건), 제작 역량 강화(2건) 추진

- 연도별 주요 지원 품목

- 2020: Tanzania HD TV Studio Production System 등
- 2021: Vietnam TV Studio Production System, Sri Lanka FM Radio Transmission System 등

- 2022: Bhutan Broadcasting Contents, Paraguay Outside Broadcasting System 등
- 2023: Tanzania Broadcasting Production Training, Paraguay TV Studio System 등
- 2024: Bangladesh Media Assets Management(MAM) System 등
- 2025년 사업 추진 현황
 - (라오스) 국영 TV HD 방송 인프라 구축 및 운용 교육('25~'26)
 - (사업 대상) 라오스 중앙당 선전교육위원회, 라오스 국영방송(LNTV)
 - (사업예산) 총 12.25억 원('25년 6.25억, '26년 6억)
 - (사업 내용) HD 방송을 위한 인프라(HD 스튜디오, 주조정실, 부조정실) 구축 및 방송 기술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지원 현황)
 - ▷ 1차 연도('25) HD 스튜디오 및 부조정실 시스템 국내 검수(11.27) 진행 후 현지 운송 예정('25.12)
 - ▷ 2차 연도('26) 내 방송 주조정실 구축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예정
 - (방글라데시) 국영 매스컴교육원 대상 교육용 방송 장비 및 역량 강화 지원('23~'25)
 - (사업대상) 방글라데시 국영매스컴교육원(NIMC)
 - (사업예산) 총 15억 원('23년 3.5억, '24년 6억, '25년 5.5억)
 - (사업 내용) 교육용 TV/라디오 방송 제작 및 송출시스템 구축 및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TV/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제작/송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지원 현황)
 - ▷ 1차 연도('23) TV 라디오 스튜디오 제작 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완료
 - ▷ 2차 연도('24) 미디어 자산관리(MAM) 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교육 진행

- ▷ 3차 연도('25) Outside Shooting VAN 시스템 국내 제작 완료 후 현지 운송 및 연내 기념식 예정
- (피지) 국영 재난방송 역량 강화('25~'27)
 - (사업대상) 피지 정보부, 피지 국영방송(FBC)
 - (사업예산) 총 24억 원('25년 10억, '26년 7억, '27년 7억)
 - (사업 내용) 신규 구축 예정인 비상방송센터(DRR) 내 재난방송용 TV·라디오 방송시스템 설계 및 구축 지원
 - (지원 현황)
 - ▷ 1차 연도('25) 재난방송용 TV 방송시스템 지원 및 운송 완료('25.11)
 - ▷ 2차 연도('26) 내 방송용 TV 방송 장비 구축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예정
 - ▷ 3차 연도('27) 내 재난방송용 라디오 방송 장비 구축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예정

[그림 2-5] 개도국 방송 환경 개선 지원 사업 2025년 협력국



자료: 임석진(2025)

-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 지원 종료사업 자체평가
 - (평가대상 사업) 파라과이 국영TV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용 교육 지원(30억 원, 2022~2024), 탄자니아 국영방송 방송서비스 자립을 위한 사후연계 지원(15억 원, 2023~2024)
 - (용역사 선정) ㈜한국기업지식연구원
 - (자체평가 실시) 현재 탄자니아, 파라과이 사업 서면 평가 중이며, 내달 파라과이 현지 실태조사 예정
- 신규사업·협력국 발굴
 - 외교부, 과기부 등 요구안에 따른 총 2개 신규사업 기획 완료
 - 개도국 재난방송 서비스 체계 구축 지원
 - AI 디지털 전파관리 역량강화
 - ICT ODA 시행기관 공동 수요조사 및 자체 수요조사를 통한 신규 협력국 6개국(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콜롬비아, 투발루, 바누아투, 필리핀) 모집 완료
- 2026년 협력국 및 사업 내용
 - (탄자니아) 방송환경개선('26~'28, 국영방송(TBC)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교육 역량 강화)
 - (라오스) 방송환경개선('25~'26, 국영TV(LNTV) HD스튜디오·부조정실 시스템)
 - (피지) 방송환경개선('25~'27, 국영방송(FBC) 재난방송용 TV방송 시스템 구축)
 - (페루) AI 디지털 전파관리 역량강화('26~'28, 교통통신부(MTC) 전파관리 역량 강화) *신규
- 기존 사업 개선 방안
 - 협력국 방송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방송 인프라 개선에서 벗어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역량 강화 교육 등 후속 지원을 통해 협력국 방송서비스 개선 및 방송 산업 자립을 위한 단계별

지원 추진 (2023~2024 탄자니아 국영방송 대상 방송 제작 역량 강화 교육 사례 참고)

- 국내·외 방송사 및 방송 분야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강화
 - KBS,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국내 방송사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규 지원 수요 발굴 및 지원 효과성 제고
 - ABU, AIBD 등 방송 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신규 지원 수요 발굴
- 특화 방송 분야 지원 확대
 - 한국교육방송(EBS), 한국교통방송(TBN) 등과의 협력을 통해 특화 방송 서비스 분야 사업 개발 및 지원 추진 (교육용 방송 콘텐츠 및 이러닝 방송 시스템 등 지원, 교통방송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 신규사업 추진
 - 개도국 AI 디지털 전파관리 역량 강화
 - (사업 배경) 개도국 전파의 경제적 가치에 비해 전파관리 시스템 구매 자본·역량 부족, 운용 조직·체계도 미비
 - (사업 내용) 개도국 대상 전파 관련 기술 자문 지원, 전파관리 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용 교육 및 컨설팅
 - (기대효과) 개도국 국민의 편의, 공공복리 증진, 전파 신산업 관련 한국 기업과의 협력 기회 확보
 - (추진계획) 2026년부터 페루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 운영 예정, 2027년부터 협력국 확보 및 사업 확대 추진
 - 개도국 재난방송 서비스 체계 구축 지원
 - (사업 배경)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정보 제공을 통한 재난 피해 경감 및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사업 내용) 개도국 재난 정보 수집·전달 체계 파악, 정책 컨설팅 및 재난 방송 인프라 구축 지원

- (기대효과) 다양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개도국 국민의 생존 기본권 보장
- (추진계획) 2027년 이후 태평양 도서국 중심으로 사업 추진계획

⑧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NIA 지운중 수석)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ICT 인프라와 교육 콘텐츠 제공
 - ICT 교육실, 라운지, 영상회의실, 콘텐츠제작실, 프로젝트룸 등 시설 구축
 - PC, 3D프린터, IoT, 드론 등 ICT 기자재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 (한국) 설계·ICT 기자재 지원, 운영 노하우 전수
 - (수원국) 정보접근센터(IAC, Information Access Center) 구축 장소 제공, IAC 운영 인력 및 예산 지원
- (센터 현황) 48개국 64개 센터(2025년 사업대상 포함) 운영, '25년 예산 29.6억 원, 연간 평균 IAC 이용자 수 400,000명 이상
- (기관 유형) 대학 50%, 정부기관 47%, NGO 3%

◦ IAC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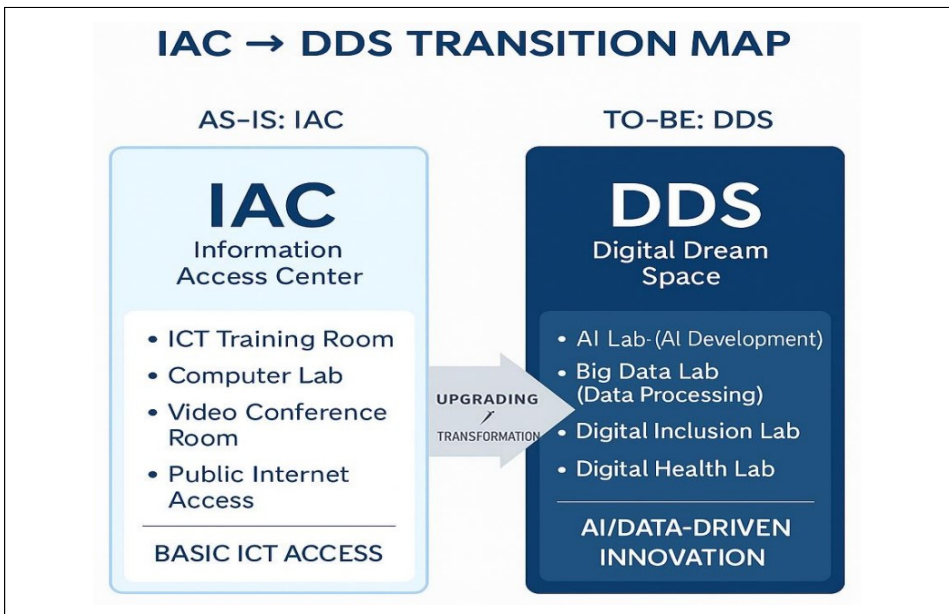
- (사업 초기 '02~'13) 2002년 캄보디아 우정통신교육원에 첫 IAC 구축,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인프라 구축 확대
- (현재 '13~'25) 접근성 강화(수도 외 지역, 이동형 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포함한 교육시설 설치 확대, 컴퓨터 보급률·인터넷 접근성 상승과 함께 국가별 IAC 고도화

◦ 2025년 사업 대상국

- (신규 구축) 에티오피아 디지털혁신기술부(MINT), 짐바브웨 국립개방대학교(ZOU), 탄자니아 ICT위원회(ICTC), 파라과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MITIC)

- (고도화) 베트남 타이응유엔대학교(TU), 엘살바도르 중미과학기술교육원(ITCA), 우간다 국가IT청(NITA), 케냐 멀티미디어대학교(MMU)
- 2025년 사업 성과
 - 4대 기능 중심으로 IAC 기능 재편(AI Lab, Big Data Lab, Digital Inclusion Lab, Digital Health Lab)
 - (AI Lab) On-premise 기반 AI training & education
 - (Big Data Lab) 데이터 수집·처리·시각화 교육
 - (Digital Inclusion Lab) 교육용 태블릿·키오스크 등 사용자 친화 인터페이스 제공
 - (Digital Health Lab) 인바디·혈압모니터 등 디지털 헬스 모니터링 실습
 - IAC 사업 명칭 변경(2027년부터 Digital Dream Space(DDS)로 추진)

[그림 2-6] IAC → DDS TRANSITION MAP



자료: 지운중(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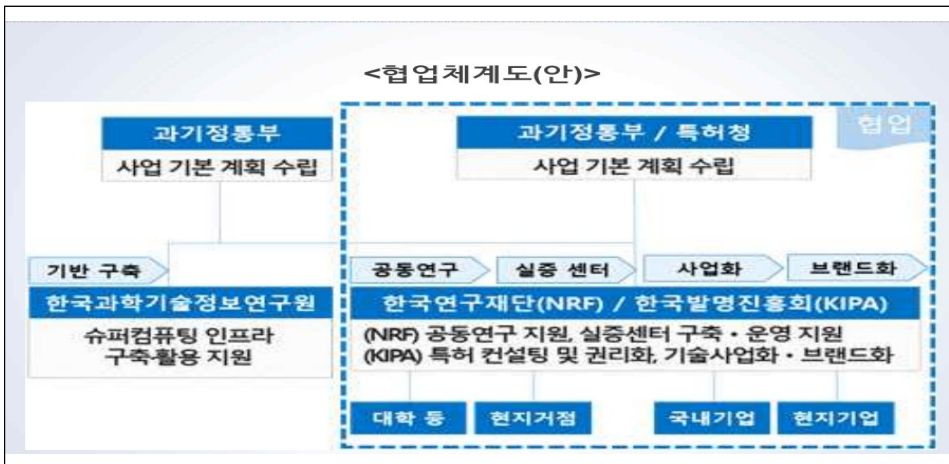
- ICT Training Room / Computer Lab / Video Conference Room
에서 AI Lab, Big Data Lab, Digital Inclusion Lab, Digital Health
Lab으로 업그레이드
- 방향성: AI/Data-driven Innovation
- 하이엔드 GPU(RTX 5090) 기반 고성능 AI 컴퓨팅 환경 제공(신규 4개소)
 - AI 모델 학습·미세조정, 빅데이터 분석, 고급 AI 연구·교육 환경 제공
- 개도국 AI 오프라인 환경 지원, RAG On-Device AI PC 지원(전체 8개소)
 - 인터넷 없이 가능한 정보 검색
 - 로컬 데이터 기반 응답 제공
 - 개인정보 보호 기반 오프라인 AI 운영
- 민간 연계형 디지털 ODA 플랫폼 시범 추진
 - ICT 기업-Digital Health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Public-Private Digital
ODA
 - 글로벌 ESG·시장 확대 연계
- 2026년 추진계획
 - (신규 구축) 스리랑카 국립경영원(NIBM)
 - (고도화) 조지아 트빌리시 시립도서관
 - 2027년 디지털 드림 스페이스(DDS) 전환 준비
 - 센터들과 네트워킹 밀도 강화(개별·권역별 협력 확대)
 - 사업 추진 시 적극적 민간 연계를 통한 디지털 ODA PPP 모델 창출
- 제언
 - 수요 기반 사업 추진 방안 고민 필요
 - 로컬 오너십에 의한 지속가능성 확보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적극적
으로 견인하는 것도 필요

⑨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 (NRF 김형주 부연구위원)

◦ 사업 개요

- (목적) R&D 기반의 전략적 과학기술 ODA 사업을 추진하여 개도국 문제 해결 및 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통한 과학기술 격차 해소에 기여
- (추진 경과)
 -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 일몰('21년)까지 사업 지원
 - 외교부 다부처 협력사업 권고(신규)
 - '21년 무상원조시행계획 확정, 지식재산활용과학기술지원사업 착수
 - 특히 R&D 분석 기반 공동연구 추진(과기정통부-특허청 협업)
- (협업체계도)

[그림 2-7] 협업체계도



자료: 김형주(2025)

- (사업 유형) 수요 발굴 및 구체화, 공동연구(특히 R&D 분석 기반), 연구기반 구축, 현지 실증센터 구축 및 지원, 기술사업화 단계로 구분

〈표 2-28〉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 사업 유형

사업 유형 및 단계	내용
수요 발굴 및 구체화	• 개도국 현지 수요기술 발굴 및 타당성조사
SDGs를 위한 개도국 공동연구	• 개도국의 연구수요를 기반으로 연구자 간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기술개발 및 현지 적용 (특허청과 협업을 통해 추진 중)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연구 기반 구축)	•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활용지원을 통한 개도국 과학기술 인프라 선진화 및 재난 대응 등 현지 현안의 과학기술적 해결 지원 (KISTI에서 직접 추진 중)
적정기술 실증센터 구축 및 지원 / 기술사업화	• 기 구축된 현지 거점의 지속가능한 운영 지원을 통해 성과 매몰 예방 및 후속사업 추진 거점으로 전환하고 공동연구 성과 및 필요성에 따라 현지 실증센터 구축 •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사업화 추진 및 제품 브랜드화

자료: 김형주(2025)

- 2025년 추진 내용 및 성과
 - (지원 규모) 한국연구재단(NRF),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수행 8개 과제
 - (지원 예산) 총 35.51억 원

〈표 2-29〉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 사업 내용

구분	과제 수	지원 기간	지원 예산
SDGs를 위한 개도국 공동연구*	7	3년	5억 원 내외/연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1	4년	10억 원 내외/연

자료: 김형주(2025)

* (공동연구 세부 현황) 5개 계속 과제, 총 21.71억 원 / 2개 신규 과제, 총 3.8억 원

- (SDGs 위한 개도국 공동연구) 특허 R&D 분석 결과를 반영한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 및 신규 과제 대상 지식 재산권 포트폴리오 및 연구 방향 제시,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 협력 추진(특허 기반 기술사업화 검토 등)

1) 파키스탄

- (사업 기간) 2022.07.01.~2025.06.30. (종료)
- (사업 내용) 현지 지하수 및 표면수의 오염특성을 분석하여 병원성 미생물 제거를 위한 정수처리 기술 개발 및 적용
- (사업 성과) 비소 제거 신기술 흡착제(비소 94.9% 제거) 개발, 파일럿 플랜트 3기 설계 및 정상운전(최대 26,500명 수혜)

2) 우즈베키스탄

- (사업 기간) 2022.07.01.~2025.06.30. (종료)
- (사업 내용) 꿀벌 유전분석 병해충 진단, 벌꿀 품질 규격화 등 현지 적용 연구 수행, 스마트 양봉 AI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데이터 구축
- (사업 성과) 병해충 진단 및 관리 고도화, 꿀벌산물 활용 제품 5종 이상 시제품 개발 및 현지 적용, 현지 전문인력 및 농가 교육 양성

3) 파키스탄

- (사업 기간) 2024.07.01.~2027.06.30. (2차년도 진행중)
- (사업 내용) 흐름식 수차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을 제작 및 설치하여 농촌 지역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

4) 우즈베키스탄

- (사업 기간) 2024.07.01.~2027.06.30. (2차년도 진행중)
- (사업 내용) 수자원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질병 및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대량생산 가능 양식 환경 기술 개발

5) 인도네시아

- (사업 기간) 2024.07.01.~2027.06.30. (2차년도 진행중)
- (사업 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성 약화와 과다한 비료사용에 의한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국내 스마트팜 기술 지원하여 현지 실증팜 구축

다. 토론 및 질의응답 내용

- 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DA 사업 평가 및 발전 방안
- 패널: 김성규 교수 (고려대학교)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간 기술·제도·역량 격차가 빠르게 확대
 -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은 디지털 정책 수립 역량,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ICT 인력 양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 단순 인프라 중심을 넘어 정책·제도·역량 강화 중심의 고부가가치 협력 모델로서 과기정통부 ODA 필요성 증가
 - KISDI 사타·NIA 현지 점검 참여 경험으로 볼 때, 협력 부처와의 관계·디지털 정책 아젠다 선정·전문성 등이 과기정통부 ODA의 강점으로 확인됨
 - (과기정통부 ODA 강점)
 - 1) 수원국 정책 수요와 높은 정합성
 - 전자정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데이터 표준화, ICT 인력양성 등은 대부분 협력국의 핵심 국가전략
 - 정책자문 수용성과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 2) 체계적인 사전 조사 및 이해관계자 메커니즘
 - 정책환경·제도현황·데이터 분석 등 기초분석의 체계성
 - 정부·민간·학계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공공성·정책 타당성 확보
 - 3) 주제 중심성 및 일관성
 - 디지털 전환, 공공데이터, 사이버보안, ICT 인력 양성 등 전문 분야 집중
 - 무리한 영역 확장을 최소화하여 정책 품질·수용성 유지
 - (도전 과제)
 - 1) 적정성 검토 강화
 - 첨단 AI·데이터 규범 등은 현지 기반이 부족할 경우 실효성 확보 어려움

- 단기적 관심과 중장기 전략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는 정교한 정책수요 분석 필요

2) 사업 선정·기획 고도화

- 현행 과정은 비교적 유연하나, 정책 변화 가능성·제도 채택 가능성·후속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정량·정성적 검토 필요

3) 후속 사업 연계성 부족

- 정책자문 → 파일럿 → 제도화 → 확산까지의 연계 로드맵 내재화 필요

4) 정책 성과관리 모델 정립

- 정책 채택 가능성, 제도 변화 수준, 실행 준비도 등 정책 기반 성과지표 체계화 필요

- (발전 방향)

- 수원국 정책 수요 기반 적정성 강화
- 단계별 후속 협력 구조 확립
- 정책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 디지털 거버넌스·데이터 정책·AI·사이버보안·디지털 인력 양성 등 분야별 대표 ODA 모델 정립 필요

◦ 패널. 권호 수석 (국제개발컨설팅)

- 프로젝트 사업 규모 확대 필요

- 2026년 종합시행계획 신규 프로젝트 7개 중 30억 이상 사업은 2개, 최대 규모는 다자성 양자사업 55억
- 국토부는 40억 이하 사업이 없으며 개발컨설팅사업도 20~30억 규모이며, 최대 97억 규모
- “과거정통부는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구조적 문제 확인

- 기술협력사업 확대·다변화 필요

- 단년도사업이 아닌 다년도사업 추진 필요
 - 예) 1년차 개발컨설팅, 2년차 인프라 구축, 3년차 역량강화교육, 4년차 지속가능성
- 중장기 컨설팅 → 후속 프로젝트 발굴 구조로 전환 필요
- 수행기관 이행체계 강화
 - 사업 규모 확대 시 수행기관 조직·인력·체계 정비 필수
 - R&D 예산체계로는 사업 규모 확장이 어려움
 - 일반 용역형 예산체계 도입 필요(외부 수행업체 조달 용이)
- 패널. 고영주 책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기술정책 협력 ODA 효과
 - 페루 ICT 기술정책협력사업 참여 경험을 통해, 실질적 정책 반영·후속사업 가능성·협력의 지속성 확인
 - 페루 CONCYTEC은 과학기술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STP(과학기술 파크) 확대 추진 중
 - 한국의 STP 선정 기준·지역 특성화·기술이전·사업화·균형발전 연계 등에 대한 자문 수요 극대화
 - 현지 부처의 지속적 참여(과기위 위원장 등)로 정책 개선 노력 확인
 - STP 기반의 한국-페루 산학연 협력·ODA 연계 가능성 확인
 - 결론: 기술정책형 ODA는 후속 ODA 수요 창출 효과가 높아 확대 필요
 - 과학기술·디지털 ODA 발굴 체계화
 - AI·탄소중립 등 기술혁신 확산으로 ODA 수요 지속 증가
 - 기존 과기·디지털·방송 ODA 사례 공유를 통해 신규 의제 발굴 세미나·스터디 그룹 운영 필요

- KOICA 및 타 부처 ODA와 연계 분석하여 과학기술·디지털 ODA 맵 구축 필요
- 지역 과학기술 ODA 확대 필요
 - 국내 지역혁신정책 확대와 연계하여 지역 기반 글로벌 ODA 협력 증가 가능
 - 개도국에서도 지역 STP 기반 과학기술·혁신 ODA 수요 증가 예상
- 대학·출연연·기업 참여 확대
 - V-KIST, 우즈베크 화학연 구축 등 출연연 기반 ODA 사례는 개도국 강한 수요 기반
 - 각 출연연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층적 ODA 발굴 가능
 - 사례 분석을 영어 보고서·논문으로 발간해 개도국 활용성 제고 필요
- 패널. 이창섭 대표 (GSI컨설팅)
- 전략적 분야 통계 분류 정비 필요
 - OECD DAC 원조 분야는 사회 인프라, 경제 인프라, 생산부문, 인도적 지원, 기타로 구성
 - ICT는 2차 분류 ‘통신(Communications)’, 3차 분류는 통신정책 및 행정 관리(22010), 라디오/텔레비전/인쇄매체(22030), 정보통신기술(22040) 등
 - 과기정통부 ODA(2024년)는 35건 15.33백만 불이나, CRS 목적코드는 식수·공공행정 등 16종으로 분산
 - “ICT 관련도와 집중도가 통계상 약하게 보이는 구조 개선 필요”
- 부처 내 사업 규모화·내실화
 - 2015~2024 전체 ODA 성장률 106% vs 과기정통부 ODA 성장률 36%
 - 사업당 평균 43,800불로 타 부처 대비 현저히 적은 예산 규모(중앙부처 중 14위, 농림축산식품부 1,261,827불, 교육부 692,307불)
 - 10개 시행기관이 분산 수행 → ODA 전문성과 기관 전문성 모두를 요구하는 구조적 한계(타 부처 시행기관들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여 융합 수행)

- 전략 분야·국가 중심의 규모화와 내부 관리체계 정비 필요
- 타 부처와의 연계성 강화 - One Korea, One Team
 - 디지털 전환 촉진 전략(2022.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에 부처 연계가 핵심
 - 협력국 내 동일 수원기관에 여러 부처가 동시에 접근하는 비효율 문제 존재
 - 공공행정·도시개발·보건의료·농수산 등 타 분야 디지털 전환에 과기정통부 역량 연계 필요
 - “부처 간 협업 기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모델” 구축 필요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KISDI 유성훈 부연구위원) 패널들이 제기한 주요 지적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대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플로어 질의)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서 중점협력국 변경 여부 및 중점협력분야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이 공통적으로 제기됨
 - (고려대 김성규 교수)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는 그동안 중점협력국과 중점협력분야가 연계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4차 계획에서는 두 요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음.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행 유지 가능성이 높아 보임. 향후 국제개발협력에서 AI,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함. 부처 간 협력 측면에서 조직 간 장벽을 허물고, 과감하게 정책 영역을 넘나드는 접근이 필요함
 - 다만 과기정통부와 외교부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과기부 예산 증액이 수용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과기정통부 이미정 사무관) 각 시행기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제안된 유의미한 의견을 향후 과기정통부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하며 토론을 마무리함

제3장 결 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및 시행기관 간 사업의 협력 전략 마련을 통해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ICT ODA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크게 기획, 사전타당성조사 및 자체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5년 과기정통부 ICT ODA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추진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2024년에 既 실시된 과기정통부 ODA 사업 통합수요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이후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라오스,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페루 5개국에서 수행하였다. 2025년 실시한 과기정통부 ODA 사업 통합수요조사는 2027년도 사업에 대한 협력국의 사업수요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28개 조사 대상국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한편, 2025년 자체평가는 과기정통부 ODA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ICT 기술정책협력 사업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사업에 대해서 실시되었다.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은 다수의 시행기관을 통해 수행되는 만큼 사업 간 협력 및 연계를 위한 체계 구축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에 필수적 요소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5년 다수의 시행기관 협의회 개최를 통해 타 시행기관들과 ODA 주요 현안들을(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제출, 사업 모니터링, 이행점검, 후속 조치 등) 논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한편, 과기정통부 ODA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ICT ODA 분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학계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와 자체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과 더불어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와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관계부처 합동(2021a),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36-1호.

_____ (2021b),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36-3호.

_____ (2022), 『과기·ICT ODA 추진전략』,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40-2호.

_____ (2024), 『중남미 개발협력전략』,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51-1호.

_____ (2025),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52-1호.

_____ (2025), 『한국 ODA 발전방안』,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52-2호.

_____ (2025),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52-3호.

_____ (2025), 『중양아시아 개발협력전략(안)』,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52-4호.

_____ (2025),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 제5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53-1호.

외교부(2025), 『2026년도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지침』

[해외 문헌]

OECD (2024),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24.
 OECD DAC (1991),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World Bank Group (2025), World Development Report 2025: Standards
 for Development

[인터넷 홈페이지]

• 국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www.nipa.kr/>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www.kisa.or.kr/main.jsp/>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https://www.nia.or.kr/site/nia_kor/
 KOICA 통계 시스템: <http://stat.koica.go.kr/>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
 ODA 통계: <https://odakorea.go.kr/statistic/main#/statSearch/>

• 해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https://www.oecd.org/en.htm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시스템: <https://stats.OECD.org/>
 국제경제포럼(WEF): <https://www.weforum.org/>
 국제연합(UN): <https://www.un.org/en/>
 국제전기통신연합(ITU): <https://www.itu.int/en/Pages/default.aspx/>
 국제통화기금(IMF): <https://www.imf.org/en/Data/>
 국제투명성기구(TI): <https://www.transparency.org/>
 글로벌 개방형 데이터인덱스: <https://index.okfn.org/>

미국국제개발처(USAID): <https://www.usaid.gov/>

세계은행(WB): <https://www.worldbank.org/ext/en/home/>

세계은행(WB) 통계 시스템: <https://data.worldbank.org/>

유럽연합(EU): https://commission.europa.eu/index_en/

[내부 자료]

RISTI(2025), “「ICT 기술정책협력」 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_____(2025),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강예진(2025), “해외 ICT 정책 결정자 협력채널”, 《2025 과학기술·디지털 ODA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 발표 #5》, 2025. 11. 26, [대한민국 서울: KISDI].

김지원(2025), “ICT 기술정책협력”, 《2025 과학기술·디지털 ODA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 발표 #2》, 2025. 11. 26, [대한민국 서울: KISDI].

김지현(2025), “과학기술혁신 분야 ODA 동향 및 시사점”, 《2025 과학기술·디지털 국제개발협력 포럼 - 발표 #1》, 2025. 11. 26, [대한민국 서울: KISDI].

김형주(2025),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 《2025 과학기술·디지털 ODA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 발표 #9》, 2025. 11. 26, [대한민국 서울: KISDI].

유성훈(2025), “디지털 분야 ODA 동향 및 시사점”, 《2025 과학기술·디지털 국제 개발협력 포럼 - 발표 #2》, 2025. 11. 26, [대한민국 서울: KISDI].

유은진(2025), “2025 과기정통부 ODA 사업 자체평가 주요 내용”, 《2025 과학기술·디지털 ODA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 발표 #1》, 2025. 11. 26, [대한민국 서울: KISDI].

이경환(2025), “K-LAB 설치 및 운영”, 《2025 과학기술·디지털 ODA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 발표 #6》, 2025. 11. 26, [대한민국 서울: KISDI].

임석진(2025), “방송환경 개선 지원”, 《2025 과학기술·디지털 ODA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 발표 #7》, 2025. 11. 26, [대한민국 서울: KISDI].

전승욱(2025), “개발은행 협력 지원”, 《2025 과학기술·디지털 ODA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 발표 #4》, 2025. 11. 26, [대한민국 서울: KISDI].

지운종(2025),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2025 과학기술·디지털 ODA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 발표 #8》, 2025. 11. 26, [대한민국 서울: KISDI].

홍순상(2025), “정보통신방송 전문가 초청연수”, 《2025 과학기술·디지털 ODA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 발표 #3》, 2025. 11. 26, [대한민국 서울: KISDI].



● 저 자 소 개 ●

유 은 진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 동 민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지 원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송 영 민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 지 원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유 성 훈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서 소 영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황 준 호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 상 원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책자료 25-16

2025 ICT ODA 관리체계 구축

(Study on ICT ODA Framework Development in 2025)

2025년 12월 인쇄

2025년 12월 발행

발행인 이 상 규

발행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TEL: 043-531-4114 FAX: 043-535-4695~6

Homepage: www.kisdi.re.kr

인쇄 경성문화사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Tel. 043-531-4114 | Fax. 043-535-4695~6 | <http://www.kisdi.re.kr>